

1단원.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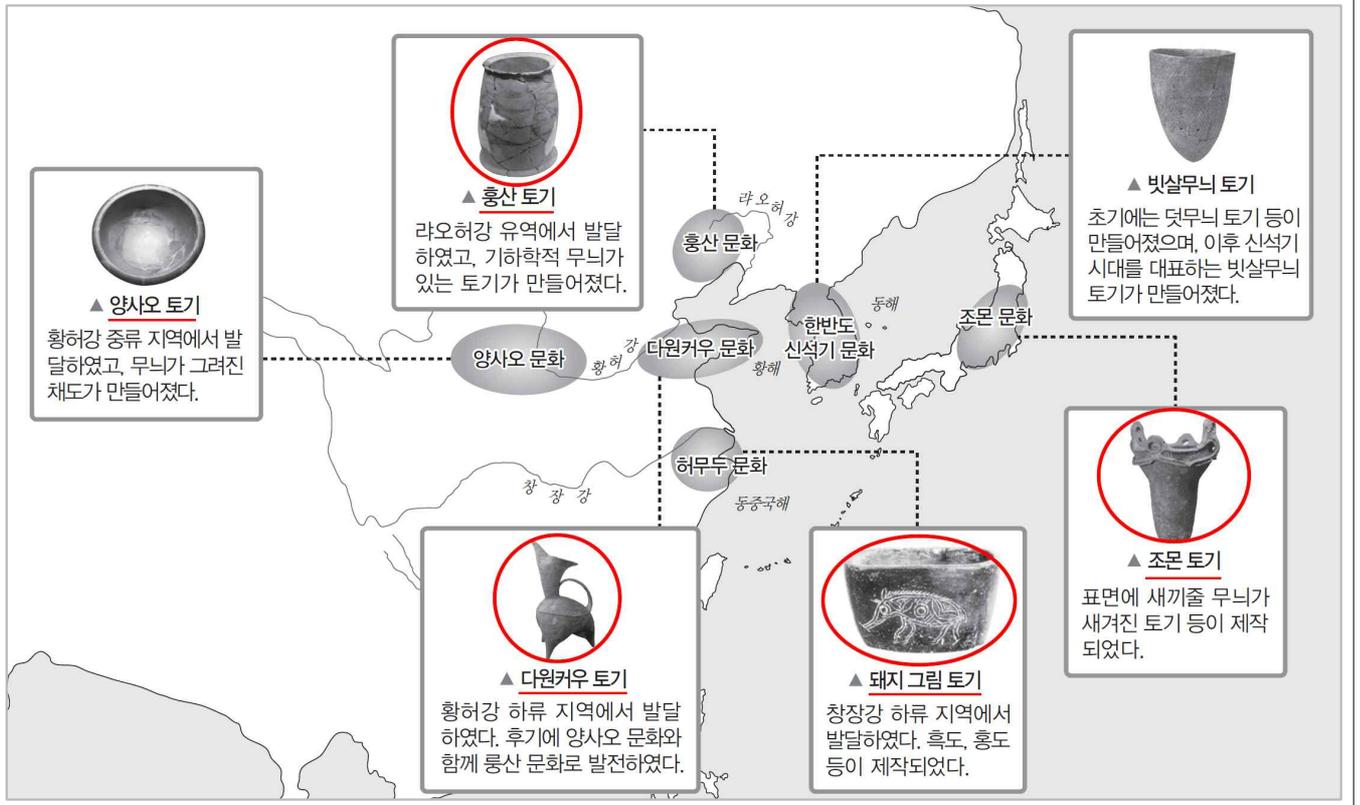
01 자연환경과 생업			
자연환경	범위	• 동서(일본 열도 ~ <u>티베트</u> 고원), 남북(베트남 ~ <u>몽골</u> 고원)	
	국가	•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타이완	
지형과 기후	지형	• 서고동저(서쪽에 티베트 고원, 동쪽에 구릉 및 평원)	
	기후	• 온대, 건조, 냉대, 열대 등 다양한 기후 • 계절풍의 영향 → 여름이 덥고 다습, 겨울에 춥고 건조	
지역과 생업	연강수량(mm)	지역	생업
	600 이상	• 중국 화남, 베트남, 일본 규슈 남부	벼농사(<u>이기작</u>)
		• 중국 화중, 한반도 중남부, 일본 혼슈	벼농사
	400 ~ 600	• 중국 화북, 한반도 북부, 만주 남부, 일본 홋카이도	<u>밭농사</u>
400 이하	• 몽골 고원, 만주 일부, 티베트 고원	<u>유목</u>	
농경 사회	지역	• 연평균 강수량 400 이상 지역	
	생활	• 정착 생활, 수리 시설 축조, 개간과 간척 실시 • 밭농사(기원전 8000 ~ 7500년경 <u>황허</u> 강 유역에서 시작) • 벼농사(기원전 7000 ~ 6000년경 <u>창장</u> 강 유역에서 시작)	
	사회	• 공동 노동을 위한 조직 발생 → 지배자의 권력 강화, 인구 증가	
유목 사회	지역	• 몽골 고원 등 동아시아 내륙의 초원 지대, 흉노·선비·돌궐·위구르·거란·몽골 등	
	생활	• 이동 생활, 이동식 가옥인 <u>게르</u> 거주, 가축으로부터 생필품 획득 • 안장과 등자(鎧子) 활용으로 전투력 강화	
	사회	• 부족 단위로 생활 → <u>부족장</u> 의 권한 강화	



<게르>

02 선사 시대의 생활		
구석기 시대	구석기인	• 베이징인, 산딩둥인(산정둥인), 덕천인, 미나토가와인(<u>오키나와</u>)
	도구	• <u>펜석기</u> , 불 사용 시작, 간단한 언어 사용
	경제	• 수렵·채집·어로 활동
	사회	• 무리 생활, 평등 사회, 이동 생활(동굴이나 막집 거주)
신석기 시대	도구	• <u>간석기</u> , 토기, 뼈바늘 사용
	경제	• 농경(조·피·수수·밀·보리 등)과 목축의 시작 → 신석기 혁명
	사회	• 씨족장의 권한 강화, 자연 현상이나 조상 등을 신으로 모시고 공동 제사 의식 거행

03 ★신석기 문화	랴오허강	<u>홍산</u> 문화	• 채도(원통형 토기), 여신의 얼굴상, 용 모양의 옥기 등	
	황허강	중류	<u>양사오</u> 문화	• 채도 등
		하류	<u>다원커우</u> 문화	• 홍도, 백도, 흑도 등
만주 지역	창장강 하류	<u>허무두</u> 문화	• 벼농사 시작(별씨 자국 토기) • 흑도(돼지 그림 토기 등) · 홍도 ⇒ 랑주 문화로 발전(옥기 등)	
한반도	토기	•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u>빗살무늬</u> 토기 등		
	생활 모습	• 돌보습 · 돌괘이 사용, 조 · 피 · 수수 등 재배, 돼지 등 가축 사육		
일본 열도	<u>조몬</u> 문화	• <u>조몬</u> 토기, 토우 제작, 농경보다는 수렵 · 채집 · 어로로 생계(生計) 유지		



[홍산] 문화



[룡산]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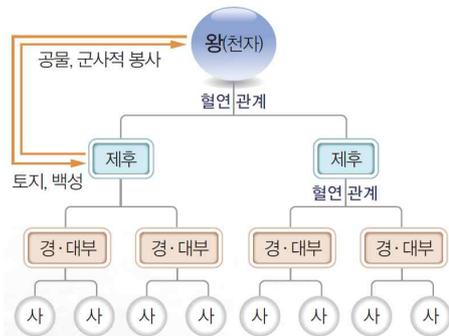
[허무두] 문화



신석기 시대의 여인상

04 청동기 시대	도구	<u>청동기</u>	• 무기, 의식용 도구, 장신구 등 주로 지배층의 소유	 (반달 돌칼)
		<u>석기</u>	• 농기구 등 실생활 도구로 사용	
경제	• 농업 생산력의 발전, 벼농사의 확산 → 잉여 생산물 증가			
사회	• 무기 발달로 인한 정복 전쟁 심화, 사유 재산제의 확산 → <u>계급</u> 분화 • 지배 · 피지배의 권력 발생, 부족 간 통합 → <u>국가</u> 의 형성(중국의 하 · 상 · 주, 한반도의 고조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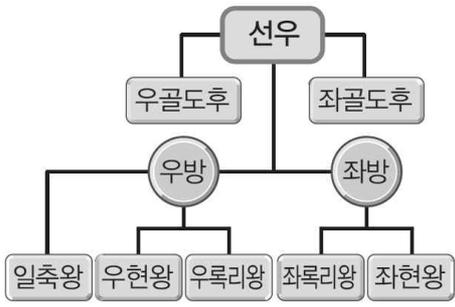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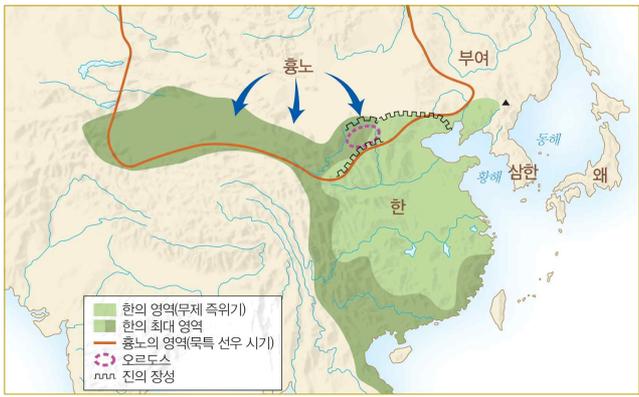
05 ★청동기 문화		
중국 황허강 유역	<p><u>얼리터우</u>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 2000년경 <u>룽산</u> 문화권에서 발전, <u>청동 술잔</u> 등 제작 궁전 터와 성벽을 갖춘 도성 유적을 통해 초기 국가 단계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 	
	<p><u>상(商)</u> 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 1600년경 청동제 도구, 무기·제사용 도구 등 제작 	
[몽골] 지역	<p>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라시아 초원 및 삼림 지대에서 발전 	
	<p>도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동제 무기, 마구(馬具), 사슴돌, 판석묘(板石墓), 돌무지 제사 유적 등을 남김 	
만주 · 한반도	<p>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 2000년경 ~ 기원전 1500년경 	
	<p>도구·유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파형 동검, 화살촉, 청동 거울 등 제작 무덤 양식으로 <u>고인돌</u> 제작 	
일본 열도	<p><u>야요이</u>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로부터 벼농사 기술을 비롯하여 청동기·철기 수용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의 공존 종 모양 청동기(동탁) 등 청동 제기 및 장신구 제작, 철제 농기구와 무기 제작 	



06 국가의 출현(1)						
중원 지역	<p>하(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 기록에 존재, <u>얼리터우</u> 유적을 그 흔적으로 추정 					
	<p>상(商)</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 1600년경 성립, 신정 정치(<u>갑골</u> 문자), 은허(수도 유적) 					
	<p>주(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 1046년경 성립, 수도 호경 <u>봉건제</u> 실시(왕이 수도와 직할지 통치, 지방은 제후에 분배) <u>천명</u> 사상과 덕치 강조 					
	<p>춘추 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 770년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 견융족의 침입으로 주의 동천[호경 ⇨ 낙읍(뤄양)] 주 왕실의 통제력 약화, 세력이 강한 제후(춘추 5패)가 정국 주도 					
	<p>전국 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 403년 봉건제 붕괴, 전국 7웅 대두(하극상, 약육강식의 시대) 상앙(? ~ 기원전 338) 등 법가 사상가의 변법 추진 					
	<p>특징</p> <table border="1"> <tr> <td>정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u>군현제</u>, 관료제 등의 통치 방식 도입 철제 무기 보급 → 군사력 강화, 전쟁 규모 확대 </td> </tr> <tr> <td>경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경과 철제 농기구 보급 → 토지 사유화 진전 상공업 발달(대상인 출현) → 화폐 유통, 도시 발달 </td> </tr> <tr> <td>사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력을 중시하여 인재 등용 → <u>제자백가</u> 등장 </td> </tr> </table>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u>군현제</u>, 관료제 등의 통치 방식 도입 철제 무기 보급 → 군사력 강화, 전쟁 규모 확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경과 철제 농기구 보급 → 토지 사유화 진전 상공업 발달(대상인 출현) → 화폐 유통, 도시 발달 	사회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u>군현제</u>, 관료제 등의 통치 방식 도입 철제 무기 보급 → 군사력 강화, 전쟁 규모 확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경과 철제 농기구 보급 → 토지 사유화 진전 상공업 발달(대상인 출현) → 화폐 유통, 도시 발달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능력을 중시하여 인재 등용 → <u>제자백가</u> 등장 					

07 ★국가의 출현(2)

중원 지역	진(秦)	시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대 통일(기원전 221) • 중앙 집권 체제 강화 ✓ 황제 칭호 최초 사용 ✓ 3공 9경의 관료제 시행, 군현제 실시, 도로망 정비 ✓ 도량형·화폐(반량전) 통일, 문자(소전) 통일 	
		멸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 통제(이사의 건의 → 분서갱유, 기원전 212) • 몽염의 흉노 정벌(기원전 215), 만리장성 축조 	
	한(漢)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 멸망 이후 항우(초)와의 전쟁에서 승리 → 재통일(기원전 202) • 법가 통치 완화, 군국제(봉건제 + 군현제) 실시 • 평성 백등산 전투 패배(⇔ 흉노의 묵특 선우, 평성지치, 기원전 200) • 흉노와 화친 조약 체결(기원전 198) ✓ 매년 다량의 공물(貢物) 제공 	
			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치 • 군현 확대 → 중앙 집권 체제 강화
		대외 팽창	경제	• 소금(鹽)·철(鐵) 전매, 상공업 통제(중농억상), 한전제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중서의 건의 → 유교의 통치 이념 채택 •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물을 관리로 선발(향거리선제)
	신(新)	왕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척 세력의 왕위 찬탈(8) • 토지 국유화 등 급진적 개혁 추진 → 호족들의 반발로 실패 	
		후한(後漢)	광무제	• 신이 멸망(23)한 후 호족의 후원을 받아 건국(25)
	흉노	성립	• 기원전 3세기 후반 유라시아 대륙 북부 초원 지대에서 유목 국가로 등장	
		발전	묵특 선우	• 만리장성 이북의 초원 지대 통합(기원전 209)
• 동호 정복, 월지 를 서쪽으로 축출, 한 고조(유방)에게 승리				
쇠퇴		• 한 무제의 원정 이후 약화 → 후한 때 남북으로 분열 → 북흉노는 서쪽으로 이동, 남흉노는 한에 포섭		
정치	• 최고 지도자 선우 아래 좌현왕 , 우현왕 등을 두어 영토를 셋으로 나누어 통치			



08	국가의 출현(8)			
	한반도 · 만주	고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동기 문화 기반,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성립한 최초의 국가 ✓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북방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경·대부·장군 등의 관직 설치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의 법 제정(8조 법금)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7웅의 하나였던 연(燕)과 대립 → 연의 침입(기원전 300) <u>위만</u>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위만</u>의 망명 → 준왕을 몰아내고 집권(기원전 194년) 철기 문화의 본격적 수용 한(漢) ~ 한반도 남부 지역 간의 중계 무역으로 번영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기원전 108)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주의 송화강 일대에서 성립 	
		고구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여의 일부 세력이 남하하여 압록강 유역에서 건국(기원전 37) 	
		삼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국들이 연맹체를 형성하여 마한, 변한, 진한 성립 농경 발달, 제정분리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요이 문화(기원전 3세기 ~ 기원후 3세기)를 바탕으로 여러 소국 등장 한위노국왕인(57년) ✓ 노국의 왕이 후한 광무제에게 조공하고 금인(金印)을 받음 	
		일본 열도	3세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마타이국 중심의 30여 개 소국 연합체 등장 <u>히미코</u> 여왕(재위 189 ~ 247) ✓ 중국의 위(魏, 220 ~ 265)에 조공하여 친위왜왕의 칭호를 받음(239년)



09	흉노 ~ 중국	
기원전 4세기	전국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흉노의 변경 습격 → 전국 7웅 중 하나인 연(燕)과 조(趙)는 장성을 축조하며 대비
기원전 215년	진(秦)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황제가 몽염을 파견하여 <u>오르도스</u> 지역의 흉노 축출 → 장성을 수리·증축
기원전 200년	한(漢)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성 <u>백등산</u> 전투에서 고조(유방)의 패배
기원전 1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친 조약 체결
기원전 13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장건</u>의 월지 파견 → 서역과 교역(기원전 126)
기원전 13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무제</u>(재위 기원전 141 ~ 기원전 87)의 무력 대응 전개 ✓ 위청·곽거병 파견 → 흉노 정벌(기원전 129)
기원전 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흉노와 전쟁에서 패배 → 화친 도모
기원전 3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u>왕소군</u>을 흉노의 호한야 선우에게 화번공주로 보냄

2단원.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10 중국의 인구 이동		
삼국 시대	• 후한 멸망 → 위(魏, 220 ~ 265), 촉(蜀, 221 ~ 263), 오(吳, 222 ~ 280)의 분열 시대	
진(晉)	• 위가 촉을 병합하고 국호를 진으로 변경(265) → 진의 오 병합(280)	
5호 16국 시대	• 5호(<u>홍노</u> · 선비 · 저 · 갈 · 강족)의 이동 → <u>화북</u> 지역에 여러 국가 건국(304 ~) • 팔왕의 난(291 ~), 영가의 난(307 ~), 5호에 밀린 한족 일부가 <u>창장강</u> 이남으로 이동 → 동진 건국	
남북조 시대	북조	• <u>북위</u> (선비족 탁발씨, 386 ~ 534)의 5호 16국 시대 통일(<u>439</u> 년) • <u>효문제</u> (㉞, 재위 471 ~ 499)의 한화 정책 ✓ 이주민(유목민)과 토착민(농경민) 사이의 갈등 완화 ✓ 균전제 실시(485), 삼장제 실시(486), 천도(평성 ⇨ <u>뤄양</u> , 493) ✓ 호북 · 호어 금지, 한족 성씨 사용, 한족과 혼인 → <u>호한융합</u> (胡漢融合)
	분열	• 동위(534 ~ 550) ⇨ 북제(550 ~ 577) • 서위(535 ~ 557) ⇨ 북주(557 ~ 581) ⇨ <u>수</u> (양전, 581 ~)
	남조	• 화북 지역에서 창장강 유역 및 그 이남으로 한족 이주 • <u>동진</u> (東晉, 317 ~ 420) ⇨ 송(宋, 420 ~ 478) ⇨ 제(齊, 479 ~ 502) ⇨ <u>양</u> (梁, 502 ~ 557) ⇨ <u>진</u> (陳, 557 ~ 589) • 풍부한 노동력과 선진적인 토목 기술을 바탕으로 강남 지역 개발 → 농업 생산력 발전
	수(隋)	• 개황률(3성 6부제, 균전제 · 조용조 · 부병제, 582), <u>과거제</u> 실시(587) • 남조의 진(陳)을 정복해 남북조 시대 통일(<u>589</u> 년), 고구려 1차 원정(598) • 견수사 입국(607), 대운하 개통(610), 고구려 2차 원정(을지문덕, 살수 대첩, <u>612</u> 년)
당(唐)	고조	• 수(隋)를 이어 중원 장악(618)
	태종	• <u>정관</u> 의 치(626 ~ 649), 고구려 공격(안시성 전투, 645), 신라와 군사 동맹 체결(<u>648</u> 년)
	고종	•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킴

11 한반도 인구 이동	
고구려	• <u>부여족</u> 의 일부인 주몽 집단 남하 → 압록강 중류의 토착 세력과 함께 졸본에서 건국(기원전 37) • 국내성 천도 이후 국력 신장, 낙랑군 축출(<u>313</u> 년), 5세기 한반도의 주도권 장악
	백제
신라	• <u>고조선</u> 유민 세력 남하 → 경주 지역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건국(기원전 57) • 주변 소국을 병합하며 진한의 주도 세력으로 발전 • <u>백제</u> 의 도움으로 남조의 양(梁)과 수교(521), 한강 확보(553), 가야 병합(532 · 562)

12 일본 열도		
야마토 정권	성립	• 한반도 및 중국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u>도래인</u>) • 4세기경 야마토 지방의 호족들이 연합하여 성립
	발전	• 거대한 무덤(<u>전방후원분</u> , 4 ~ 6세기)을 만들어 권력 과시 • 스에키 제작, 아스카 문화 발전 ✓ 중국의 남조, 한반도 삼국과 가야의 선진 문물 수용

13 7세기의 동아시아																			
양상	• 나당 연합(동서 세력) ⇔ 고구려·백제·왜 연합(남북 세력)																		
전개	• 나당 연합 결성(648년) ⇨ 백제 멸망(660년) ⇨ 백강 전투(663년) ⇨ 고구려 멸망(668년) • 당의 한반도 전체 지배 의도 표출(도독부·도호부 설치) ⇨ 나당 전쟁 ⇨ 신라의 삼국 통일(676년)																		
지역 국가의 성립	<table border="1"> <tr> <td>당</td> <td>• 동아시아의 패자로 성장 → 당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형성 • 6개 <u>도호부</u>(都護府) 설치[안북(630 ~)·안동(668)·<u>안남</u>(679 ~ 862) 등]</td> </tr> <tr> <td>통일 신라</td> <td>• 기벌포 전투(676) 이후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 지배</td> </tr> <tr> <td>발해</td> <td>• 고구려 유민이 말갈족과 함께 건국(대조영, 698년)</td> </tr> <tr> <td rowspan="4">일본</td> <td> <table border="1"> <tr> <td>아스카 시대 (592 ~ 710)</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토쿠 태자의 섭정(593 ~ 622년) 견수사(607), 견당사(630 ~), 견신라사 파견 → 선진 문물 수용 다이카 개신(645) ✓ 당의 율령 체제 도입, 중앙 집권 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 추진 7세기 말에 ‘일본’ 국호 및 ‘천황’ 칭호 사용 시작 </td> </tr> <tr> <td>나라 시대</td> <td>• 당의 장안성을 참고하여 나라에 <u>헤이조쿄</u>를 건설하고 천도(710)</td> </tr> <tr> <td>헤이안 시대 (794 ~ 1185)</td> <td>• 교토에 <u>헤이안쿄</u>를 건설하고 천도</td> </tr> <tr> <td></td> <td>• <u>견당사</u> 파견 중단(894), 무사(사무라이) 등장</td> </tr> </table>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남북국 시대</td> </tr> </table>	당	• 동아시아의 패자로 성장 → 당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형성 • 6개 <u>도호부</u> (都護府) 설치[안북(630 ~)·안동(668)· <u>안남</u> (679 ~ 862) 등]	통일 신라	• 기벌포 전투(676) 이후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 지배	발해	• 고구려 유민이 말갈족과 함께 건국(대조영, 698년)	일본	<table border="1"> <tr> <td>아스카 시대 (592 ~ 710)</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토쿠 태자의 섭정(593 ~ 622년) 견수사(607), 견당사(630 ~), 견신라사 파견 → 선진 문물 수용 다이카 개신(645) ✓ 당의 율령 체제 도입, 중앙 집권 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 추진 7세기 말에 ‘일본’ 국호 및 ‘천황’ 칭호 사용 시작 </td> </tr> <tr> <td>나라 시대</td> <td>• 당의 장안성을 참고하여 나라에 <u>헤이조쿄</u>를 건설하고 천도(710)</td> </tr> <tr> <td>헤이안 시대 (794 ~ 1185)</td> <td>• 교토에 <u>헤이안쿄</u>를 건설하고 천도</td> </tr> <tr> <td></td> <td>• <u>견당사</u> 파견 중단(894), 무사(사무라이) 등장</td> </tr> </table>	아스카 시대 (592 ~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토쿠 태자의 섭정(593 ~ 622년) 견수사(607), 견당사(630 ~), 견신라사 파견 → 선진 문물 수용 다이카 개신(645) ✓ 당의 율령 체제 도입, 중앙 집권 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 추진 7세기 말에 ‘일본’ 국호 및 ‘천황’ 칭호 사용 시작 	나라 시대	• 당의 장안성을 참고하여 나라에 <u>헤이조쿄</u> 를 건설하고 천도(710)	헤이안 시대 (794 ~ 1185)	• 교토에 <u>헤이안쿄</u> 를 건설하고 천도		• <u>견당사</u> 파견 중단(894), 무사(사무라이) 등장	남북국 시대	
	당	• 동아시아의 패자로 성장 → 당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형성 • 6개 <u>도호부</u> (都護府) 설치[안북(630 ~)·안동(668)· <u>안남</u> (679 ~ 862) 등]																	
	통일 신라	• 기벌포 전투(676) 이후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 지배																	
	발해	• 고구려 유민이 말갈족과 함께 건국(대조영, 698년)																	
	일본	<table border="1"> <tr> <td>아스카 시대 (592 ~ 710)</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토쿠 태자의 섭정(593 ~ 622년) 견수사(607), 견당사(630 ~), 견신라사 파견 → 선진 문물 수용 다이카 개신(645) ✓ 당의 율령 체제 도입, 중앙 집권 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 추진 7세기 말에 ‘일본’ 국호 및 ‘천황’ 칭호 사용 시작 </td> </tr> <tr> <td>나라 시대</td> <td>• 당의 장안성을 참고하여 나라에 <u>헤이조쿄</u>를 건설하고 천도(710)</td> </tr> <tr> <td>헤이안 시대 (794 ~ 1185)</td> <td>• 교토에 <u>헤이안쿄</u>를 건설하고 천도</td> </tr> <tr> <td></td> <td>• <u>견당사</u> 파견 중단(894), 무사(사무라이) 등장</td> </tr> </table>	아스카 시대 (592 ~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토쿠 태자의 섭정(593 ~ 622년) 견수사(607), 견당사(630 ~), 견신라사 파견 → 선진 문물 수용 다이카 개신(645) ✓ 당의 율령 체제 도입, 중앙 집권 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 추진 7세기 말에 ‘일본’ 국호 및 ‘천황’ 칭호 사용 시작 	나라 시대	• 당의 장안성을 참고하여 나라에 <u>헤이조쿄</u> 를 건설하고 천도(710)	헤이안 시대 (794 ~ 1185)	• 교토에 <u>헤이안쿄</u> 를 건설하고 천도		• <u>견당사</u> 파견 중단(894), 무사(사무라이) 등장									
		아스카 시대 (592 ~ 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쇼토쿠 태자의 섭정(593 ~ 622년) 견수사(607), 견당사(630 ~), 견신라사 파견 → 선진 문물 수용 다이카 개신(645) ✓ 당의 율령 체제 도입, 중앙 집권 국가 수립을 위한 개혁 추진 7세기 말에 ‘일본’ 국호 및 ‘천황’ 칭호 사용 시작 																
나라 시대		• 당의 장안성을 참고하여 나라에 <u>헤이조쿄</u> 를 건설하고 천도(710)																	
헤이안 시대 (794 ~ 1185)		• 교토에 <u>헤이안쿄</u> 를 건설하고 천도																	
	• <u>견당사</u> 파견 중단(894), 무사(사무라이) 등장																		
남북국 시대																			

14 국제 관계 다원화						
조공과 책봉	정의	<table border="1"> <tr> <td>책봉(冊封)</td> <td>• 황제가 벼슬을 내리거나 영토의 지배를 인정하는 행위</td> </tr> <tr> <td>조공(朝貢)</td> <td>• 충성의 의미로 황제에게 공물(貢物, 조공품)을 바치는 행위</td> </tr> </table>	책봉(冊封)	• 황제가 벼슬을 내리거나 영토의 지배를 인정하는 행위	조공(朝貢)	• 충성의 의미로 황제에게 공물(貢物, 조공품)을 바치는 행위
	책봉(冊封)	• 황제가 벼슬을 내리거나 영토의 지배를 인정하는 행위				
	조공(朝貢)	• 충성의 의미로 황제에게 공물(貢物, 조공품)을 바치는 행위				
	성립	주(周)	• <u>혈연</u> 관계를 기초로 하여 왕과 제후 사이에 성립된 상하 관계			
		한(漢)	고조	•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배 → 매년 많은 물자를 보내는 조건으로 화친 체결		
			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 유교적 통치 이념과 <u>화이관</u>(華夷觀) 확립 주변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 조공·책봉의 형식 적용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 외교의 틀 각국의 필요에 따라 체결(대내외적 필요에 따라 중단 가능) ✓ 중원 왕조는 중국 중심의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 주변국은 정치·경제·문화적 실리 추구 • 책봉 없이 교역을 위한 조공만 이루어지기도 함 					
변화	• 상호 우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현실적·다원적 외교로 변모					

15 남북조 시대			
국제 관계	초원	• 5세기 유연 ⇨ 6세기 <u>돌궐</u> 의 성장(유연 격파, 552)	
	남북조	• 주변 소국들과 조공·책봉 관계, 서로 사절 교환(상대국 사절을 <u>조공</u> 사절로 간주)	
	만주·한반도	고구려	• 장수왕(재위 413 ~ 491) 때 남북조 모두와 조공·책봉 관계 체결
		백제	• 남조와 지속적으로 조공·책봉 관계 유지
	신라	• <u>백제</u> 의 중개로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 체결(521) → 직접 교류(553 ~)	
왜	• 남조의 <u>송</u> (420 ~ 478)과 조공·책봉 관계 형성, 백제·신라와 사절 교환		

16 수·당 시대			
국제 관계	특징	• 주변국에 자국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요구	
	유목 민족	특징	•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미수용 → 경제적 목적의 <u>조공</u> 관계만 요구
		돌궐	• 조공 관계 체결, <u>화번</u> 공주 파견[안의공주· <u>의성</u> 공주(수), 형양공주(당)]
		<u>토번</u>	• 송첸캄포 ⇄ 태종, 당의 굴복, 문성공주 파견(640)
	<u>위구르</u>	• 당 덕종(재위 780 ~ 805)의 함안공주 파견(788)	
	만주 · 한반도	특징	•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수용 ✓ 정권 안정과 선진 문물 도입, 대외적인 군사적 위협 대처
		발해	• 산둥 반도 공격(732), 당의 발해국왕 책봉(문왕, <u>762</u> 년)
신라		• 성덕왕(재위 702 ~ 737) 때 혈맹 관계 회복	
일본	• 당과 <u>조공</u> 관계만 체결, <u>견당사</u> 파견(630 ~ 894), 신라·발해와 사신 교환		
<u>자국</u> 중심의 천하관	• 동아시아 각국은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자국을 중심에 놓고 조공·책봉의 외교 형식을 활용		
	• 독자적 연호와 군주 칭호 사용		
	• 광개토태왕릉비문(414), 백제 동성왕의 탐라 복속(498), 왜의 국서(607)		

17 국제 질서 재편			
10세기	북방	• 거란 → <u>요</u> 건국(916)	
	중원	5대 10국	• 당 멸망 이후 주전충의 후량 건국으로 분열 시대 시작(907)
		송	• 조광윤의 건국(<u>카이펑</u> , 960) → 분열 시대 종식·재통일(979)
	한반도	• 후삼국 시대(901 ~) ⇨ 고려 건국(918) ⇨ 발해 멸망(926) ⇨ 후삼국 통일(936)	
일본	• 헤이안 시대(794 ~)		
11세기	북방	• 탕구트족 → <u>서하</u> 건국(1032)	
	중원	북송	• 왕안석의 변법(1069)
	한반도	고려	• <u>거란</u> 의 침입(1010 → 1018)
12세기	북방	• 여진 → <u>금</u> 건국(1115), 요 멸망(1125)	
	중원	• 북송 멸망(1126), 남송 건국(<u>임안</u> , 1127)	
	한반도	고려	• <u>금</u> 과 군신관계 체결(1126)
	일본	• <u>가마쿠라</u> 막부 수립(미나모토노 요리토모, 1185)	

18 북방 민족의 성장		
거란(요)	건국	• <u>야율아보기</u> (916), 상경임황부(上京臨潢府, 918 → 938)
	성장	• <u>발해</u> 정복(926), 만리장성 이남의 <u>연운 16주</u> 확보(936), <u>전연의 맹약</u> 체결(1004)
	정책	• 이원적 통치(<u>북면관·남면관제</u>), 거란 문자 사용
탕구트(서하)	건국	• 조원호(1032), <u>칭제건원</u> (이원호, 1038), 영하흥경부(寧夏興慶府)
	성장	• <u>거란</u> 과 조공·책봉 관계, <u>송</u> 과 강화 조약 체결(경력의 화약, 군 <u>신</u> 관계, 1044), 비단길 장악(동서 무역 주도), <u>금</u> 과 군 <u>신</u> 관계 체결
	정책	• 서하 문자 사용
여진(금)	건국	• <u>아구다</u> (1115), 상경회령부, 중도 천도(1153·1161), <u>카이펑</u> 천도(1157·1214)
	성장	• 거란 정복(1125), 북송 정복(1126), 소흥화의(~ <u>남송</u> , 군 <u>신</u> 관계, 1142)
	정책	• 이원적 통치(<u>맹안모극제</u> ·주현제), 여진 문자 사용

19 고려의 대외 관계		
거란의 침입	1차	• 서희의 외교 답판으로 화친 → 강동 6주 획득(994)
	3차	• 강감찬의 귀주 대첩(1019) → 친선 관계 유지(고려가 거란에 조공)
금	동북 9성	• 윤관이 별무반 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여 축조(1107) → 반환(1109)
	군신 관계	• 요를 정복한 후 사대 관계 요구 → 이자겸, 척준경 등의 수용(1126)
송		• 국교(962) 이후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교류 지속 → 공식 외교 관계 단절 → 재개(1071)

20 일본의 대외 관계	
헤이안 시대	• 견당사 폐지(894 년) → 10세기 이후 주변국과의 공식적 외교 관계 축소
	• 송의 동전 대량 수입, 송 상인과 승려 등을 통한 민간 교류
	• 쓰시마 통해 고려와 교류 지속
가마쿠라 막부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수립(1185) → 일왕으로부터 쇼군 (정이다장군) 책봉(1192)
	•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에 소극적, 민간 교류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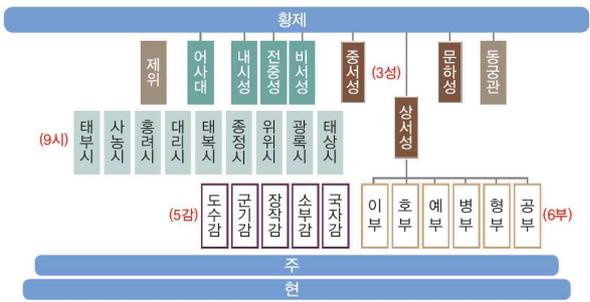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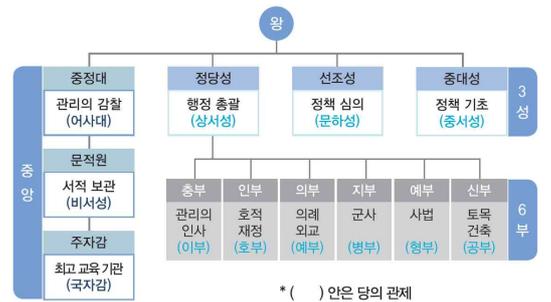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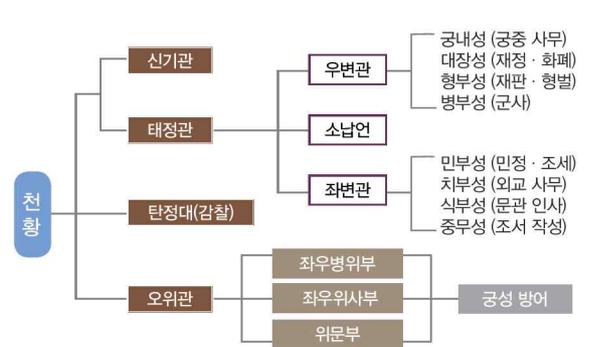
21 몽골 제국		
성립	• 몽골 지역에서 테무친이 몽골계 부족 통합 → 쿠빌타이 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 예게 몽골 울루스(대몽골 제국) 수립(1206)	
발전	• 칭기즈 칸(재위 1206 ~ 1227) ✓ 천호·백호제 재편(군사력 강화), 금 침공, 호라즘 정벌(비단길 장악, 1220), 서하 정복(1227)	
	• 오고타이 칸(재위 1229 ~ 1241) ✓ 고려 침공(1231), 금 정복(1234)	
	• 쿠빌라이 칸(재위 1260 ~ 1294) ✓ 국호 '대원' (1271), 카라코룸에서 대도 (베이징)로 천도(1272) ✓ 고려 복속(1270), 남송 정복(유목 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 지배, 1279)	
	• 몽골 제일주의 (몽골인이 정치·군사 담당, 색목인이 재정 담당,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층)	
통치 방식	• 지방에 행성 설치	
대몽 항쟁	고려	• 무신 정권의 저항(강화 천도, 1232) ⇨ 몽골과 강화 이후 삼별초 의 저항(1270 ~ 1273) • 부마국의 지위, 정동행성 설치(1280)
	일본	• 여·원 연합군의 원정(1274·1281) → 가마쿠라 막부의 저항과 태풍
	원 왕조	• 몽골의 세 차례 침략(1257·1284·1287) → 원흥다오 (? ~ 1300)의 격퇴 •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몽골에 조공
교역망의 통합	교통로	• 초원길, 비단길 등의 동서 교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
	역참	• 제국 전역에 도로망 건설 후 일정 간격으로 설치 ✓ 군사적 목적, 중앙과 지방 교류 활성화, 동서 통합 촉진
	시박사	• 항저우·취안저우·칭다오 등에 설치, 해상 무역선 관리 → 고려·일본·베트남·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의 형성
	교초	• 지폐, 몽골 제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ex] 중통원보(中統元寶)], 은과 교환 가능
교류 활성화		• 서아시아의 천문학·역법·수학·지도학 등 전래 → 수시력 제작(곽수경, 1281)
		• 마르코 폴로의 입국(1274 → 『동방견문록』), 이븐 바투타의 입국(1344 → 『삼대륙주유기』)

10 ~ 14세기의 동아시아



22	국제 질서의 재편	
명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난징을 도읍으로 건국(1368) • 몽골 세력을 초원 지역으로 축출하고 한족 문화 회복 노력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락제(⑤, 재위 1402 ~ 1424) ✓ 베이징 천도(1421), 몽골 공격, 정화의 항해 추진(1405 ~ 1433), 대월 복속(1407) • 조선, 여진, 류큐, 일본 등 주변국에 명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 요구 • 정화의 항해 이후 플라카 왕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명에 조공
		조선
무로마치 막부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고려 연합군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가마쿠라 막부 쇠퇴 → 멸망(1333) • 고다이오 일왕의 친정(1333 ~ 1336) • 무사들의 지지를 받은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막부 수립(교토, 1336)
	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조의 분열(1336 ~ 1392년) ✓ 교토의 일왕(북조)을 내세운 무로마치 막부와 요시노로 피신한 일왕(남조)의 대립 •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분열 통합 → 일본 열도에 대한 지배권 확립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과 국교 수립(아시카가 요시미쓰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 1401년) • 명과 감합 무역 전개(勘合貿易, 1404 ~ 1547)

23	율령(①)	
의미	율(律)	• 범죄 행위와 처벌을 규정하는 형벌 위주 법률
	영(令)	• 국가의 조직과 운용, 신분과 수취 제도 등을 규정한 행정 위주 법률
발전	전국 시대	• 법가 사상가의 활약(상앙의 변법)
	진(秦)	• 법치(법가 사상)에 입각한 정책 실시
	한(漢)	• 법가 와 유가 의 결합
		✓ 진(秦)의 법률 계승, 유교 윤리 강조(군주에 대한 충성, 가족 및 향촌 질서 유지)
	무제	• 동중서 의 건의 수용 →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 태학 설립
	수·당	특징
율(律)		• 『당률소의(唐律疏議)』(653)
		✓ 태·장·도·유·사의 5종 형벌 ✓ 귀천·존비·장유에 따라 차등 적용
영(令)	• 중앙(3성 6부), 지방(주현제), 감찰(어사대), 교육(국자감), 군사(부병제), 관리 선발(이부 주관, 과거제), 토지 제도(군전제), 수취 제도(조·용·조)	

24 율령(2)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치 기구와 이념, 관료 선발과 교육 제도에 영향 •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 • 각국의 신분 질서와 관습에 따라 선택적으로 중국의 율령 수용 											
	한반도	<p>발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과는 명칭이나 운영 방식이 다른 3성(정당성·선조성·중대성) 6부제 시행 • 감찰(중정대), 출판·서적 관리(문적원), 교육(주자감) <p>신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품제 유지, 국학 설립(682), 독서삼품과 실시(788), 민정문서 작성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카 개신(645) ✓ 소가씨 제거 후 당의 율령 체제 수용 시도 • 다이호 율령(701) ✓ 2관(신기관·태정관) 8성(중무성·식부성·치부성·민부성, 병부성·형부성·대장성·공내성), 지방(국·군·리), 감찰(탄정대) 											
<p>▶당의 관제</p> 	<p>▶발해의 관제</p> 												
<p>▶일본의 중앙 관제</p> 	<p>▶동아시아 3국의 교육 기관과 관리 선발 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교육 기관</th> <th>관리 선발 제도</th> </tr> </thead> <tbody> <tr> <td>중국</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중앙에 태학, 오경박사 설치 • 당: 중앙에 국자감 설치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향거리선제 실시 • 위진 남북조: 9품중정제 실시 • 수·당: 과거제 실시 </td> </tr> <tr> <td>한반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중앙에 태학 설치(한학 교육) • 백제: 오경박사 설치 • 신라: 유교 경전 교육, 화랑도 • 통일 신라: 국학 설립 • 발해: 주자감 설치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신라: 독서삼품과 실시(788) • 고려: 과거제 실시(958) </td> </tr> <tr> <td>일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에 태학료 설치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제 등의 관리 선발 제도 없었음. </td> </tr> </tbody> </table>		교육 기관	관리 선발 제도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중앙에 태학, 오경박사 설치 • 당: 중앙에 국자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향거리선제 실시 • 위진 남북조: 9품중정제 실시 • 수·당: 과거제 실시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중앙에 태학 설치(한학 교육) • 백제: 오경박사 설치 • 신라: 유교 경전 교육, 화랑도 • 통일 신라: 국학 설립 • 발해: 주자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신라: 독서삼품과 실시(788) • 고려: 과거제 실시(958)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에 태학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제 등의 관리 선발 제도 없었음.
	교육 기관	관리 선발 제도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중앙에 태학, 오경박사 설치 • 당: 중앙에 국자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향거리선제 실시 • 위진 남북조: 9품중정제 실시 • 수·당: 과거제 실시 											
한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구려: 중앙에 태학 설치(한학 교육) • 백제: 오경박사 설치 • 신라: 유교 경전 교육, 화랑도 • 통일 신라: 국학 설립 • 발해: 주자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신라: 독서삼품과 실시(788) • 고려: 과거제 실시(958)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에 태학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제 등의 관리 선발 제도 없었음. 											

25 과거제의 발전		
중국	수	• 최초 시행(유교 경전 시험을 통해 관리 후보 선발, 587)
	송	• 황제가 시험을 직접 주관하는 전시 제도 정례화
한반도	고려	• 광종(4, 재위 949 ~ 975) 때 쌍기의 건의로 도입(958)
	조선	• 문과, 무과, 잡과 실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학자 관료층의 성장, 학문적 능력 중시, 유학 발전 •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군주권 강화 	

26 불교 전파와 교류

대승 불교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원전 1세기경 일반 신도(재가자)를 중심으로 이타행(利他行) 강조 부처(석가모니) 신격화, 부처의 자비(慈悲)로 중생이 구제될 수 있다고 주장 		
		중원	후한	• 중앙아시아를 거쳐 화북에 전파(67)
위·진·남북조	•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많은 사찰과 거대한 불상 건립			
당	• 중국 불교의 황금기			
불교의 확산	한반도	삼국 시대	• 중앙 집권 체제 확립 과정에서 불교 수용	
			✓ 고구려(from 전진, 372), 백제(from 동진, 384), 신라[from 고구려·양, 457·521, 이차돈의 순교와 공인(527)]	
		•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발전(교종 중심)		
	통일 신라	• 원효, 의상에 의해 대종화		
	일본	야마토 정권	• 불교 전래(from 백제, 노리사치계, 552년)	
			• 토착 신앙과의 갈등 속 보급	
아스카 시대		• 왕실과 유력 가문의 권력 과시를 위해 대규모 사찰 건립		
		• 한반도의 영향으로 불교문화 발달		
나라 시대	• 호류사 건립(607)			
		•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호류사 백제 관음상		
		• 도다이사 건립(745), 노사나 대불(쇼무 일왕, 743 → 752)		
불교의 토착화	국가 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즉불(王即佛, 군주가 부처)의 논리로 왕권 강화 국가의 지원과 주도로 대장경(大藏經) 제작 대규모 사찰과 거대한 불상 건립(원강·릉면 석굴 사원, 황룡사·석굴암, 도다이사 등) 		
		융합	중국	• 『부모은중경』(당, 유교의 덕목인 효를 강조한 새로운 경전)
			한반도	• 산신·칠성·용 신앙과 결합, 사찰 내에 산신각·칠성각 건립
	일본		• 신토의 신들이 부처나 보살로 표현 → 신불습합 (하치만 신상)	
	선종 발달	특징	• 직관적 깨달음과 참선(參禪) 중시	
		확산	• 신라 하대(호족의 지원), 가마쿠라 막부 시대 무사 사회에서 유행	
불교문화	예술	• 불상, 불화(회화 기법의 발전), 범종 등		
	건축	• 사찰과 불탑의 제작(중국의 전탑 , 한국의 석탑, 일본의 목탑), 기단, 주춧돌, 기와 사용		
	인쇄술	• 신라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		
• 송·요·금의 대장경, 고려의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 ⇔ 몽골 , 1236 ~ 1251)				
인적·지적 교류	승려	문화 교류		
		동진	법현	• 인도 기행, 『불국기(佛國記)』 저술(416)
		당	현장	• 인도 순례(육로, 629 ~), 불경을 가져와 번역
				• 대안탑 조성,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저술(646)
			감진	• 일본행(753), 도다이사(東大寺)에서 계율 전수
		고구려	혜자	• 도일(595), 쇼토쿠 태자(섭정 593 ~ 622)의 스승으로 활동
			의상	• 당에 유학하고 귀국하여 신라 화엄종 개창(671)
		신라	혜초	•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오천축국전』 저술(727)
				• 당에 유학,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에 머물며 장보고의 도움을 받음
		일본	엔닌	• 『입당구법순례행기』 저술(838 ~ 847)

오늘도 역사를 합시다!!

▣ 불교문화와 교류



<원강 석굴 사원의 대불>



<6세기 동아시아의 불교 교류>



<대안탑>



<감진 목조상>



<하치만 신상>

27	동아시아 문화권	
당의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도시 장안 → 발해의 상경성, 일본 헤이조쿄 · 헤이안쿄에 영향 각국의 사신 · 상인 · 승려 · 예술가 등 외국인 체류, 신라방 · 발해관 등 설치 	
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라 장보고가 청해진(828 ~ 851)을 거점으로 당 ~ 한반도 ~ 일본을 잇는 해상 교역 주도 발해도 당(영주도 · 조공도), 신라(신라도), 일본(일본도)과 교류 	
일본의 견당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의 선진 문물 수용(630 ~ 894), 일본에 당풍 유행 	
동아시아 문화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율령 ·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불교, 한자 등 공유 	

28	성리학	
송 이전의 유학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의 관학화(통치 이념 역할), 훈고학(訓誥學) 발달(· 분서갱유)
	남북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교, 도교의 융성으로 유학 쇠퇴
	수 · 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제 시행으로 부흥, 『오경정의』 편찬으로 훈고학 집대성(공영달, 653)
성리학의 성립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대부의 성장(과거를 통해 관직 진출, 황제 중심의 관료 체제하에 지배층으로 등장) 요, 금의 압박으로 한족의 민족의식 강화[중화사상, 화이관(華夷觀) 중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학이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적 논리 체계 수용(이론적 탐구와 수양 강조 경향) 우주 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신유학
	집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송의 유학자 주희(= 주자, 1130 ~ 1200) ✓ 성즉리 주장, 거경공리와 격물치지를 수양 방법으로 제시 → 『근사록』(1175) ✓ 오경보다 사서 중시 → 『사서집주』(논어집주 · 맹자집주 · 대학장구 · 중용장구, 1177)
성리학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자가례』(朱子家禮), 『소학(小學)』의 보급 ✓ 동아시아에 성리학적 가치관 확산 • 대의명분론과 화이관 강조
성리학의 보급	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현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한 사설 교육 기관, 사대부 결집에 영향, ex) 백록동 서원
	향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부상조 정신과 유교 윤리가 결합된 향촌(鄉村)의 자치 규약 • 서민에게 성리학적 규범이 확산되는데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 청대 신사(紳士)나 조선 시대 양반층에 의해 유교 의례와 이념 확산

『대학』은 공자가 남긴 글로서, 학문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배워야 할 덕행의 지름길이다. 곧 오늘날 사람이 옛사람들의 글을 배우는 첫 번째 순서가 『대학』이며, 『논어』와 『맹자』가 다음이다. 『대학』으로부터 학문을 시작하면 깨달음을 얻는 데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거경공리(居敬窮理)와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성리학에서 강조한 수양 방법이다. 잡념이나 망상을 끊은 상태에서 마음에 본래 있는 이(理)를 밝히는 것을 거경공리라 하고, 사물의 의미를 끝까지 탐구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을 격물치지라고 한다.

29	성리학의 확산			
한반도	전래	• 고려 후기 안향 등이 원(元)으로부터 도입 · 소개(1290)	• 고려 말 신진 사대부 가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반 → 불교와 권문세족 비판	
		• 조선 건국의 이념적 기반, 국가 통치 이념, 각종 사회 의례의 기준	• 성리학의 이해 심화 ✓ 우주론과 인간 심성 문제 논쟁, 학파를 통해 붕당(朋黨) 형성	
	발전	• 사림(士林) 의 성장	✓ 향약(여씨 향약, 1517)과 서원(백운동 서원, 1543) 보급	✓ 이황(일본 성리학 발전에 영향, 『성학십도』), 이이 (통치 체제 정비와 수취 제도 개혁 방안 제시, 『성학집요』 · 『격몽요결』)의 성리학 연구
		• 성리학적 사회 질서 확산	✓ 『 주자가례 』에 의한 관혼상제 확산, 부모 삼년상, 가묘(家廟)와 사당(祠堂) 건립, 장자 중심의 상속과 제사 확산, 친영제(親迎制) 보편화	
일본	전래	• 가마쿠라 막부 시대 후기에 전래되어 승려들 사이에서 연구		
		• 에도 시대에 본격화		
	발전	• 후지와라 세이카(1561 ~ 1619)	✓ 조선의 강항과 교류, 『 사서오경왜훈 (四書五經倭訓)』 간행(1599)	
		• 하야시 라잔 (1583 ~ 1657)	✓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 성리학을 바탕으로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	✓ 성리학이 관학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 신분 사회의 틀 강화(『 삼덕초 』 저술)

인간 세계는 만사가 상하 관계 또는 전후 관계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진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세계를 예(禮)의 마음으로 깎 채운다면 군신 관계가 어지럽지 않고, 그에 따라 마땅히 인간 사회 또한 평화롭게 안정될 것이다.
- 『삼덕초(三德抄)』

30	양명학의 발전		
	등장 배경	• 성리학이 과거 합격에 치중(성리학의 교조화) → 사회 모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집대성	• 왕수인(= 왕양명, 1472 ~ 1528) ✓ 심즉리 (마음이 곧 이, 心卽理) 강조, 『전습록(傳習錄)』 저술(1511) ✓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앎과 실천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행합일 주장	
	발전	• 사대부뿐만 아니라 서민에게도 큰 환영 → 지나치게 공리공론(空理空論)으로 흐르는 폐단	

- 지(知)라는 것은 공리하여 예(禮)를 아는 것이다. 예에 맞춰 행동하여 모두 절도에 맞고 의(義)를 알면 높은 경지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이 학문**에서 양지설(良知說)을 주장하는 것은 만물과 나를 분리시켜 만물과 내가 서로 대립하고, 마음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 이것은 도가 아니다. [이 학문 = **양명학**]
- 그는 『대학』의 격물(格物)을 ‘사물을 바로 잡는다.’ 라고 해석하였으며, 『대학문』이라는 저서를 남겼다. 또한 그는 사람이 누구나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선천적, 본원적인 도덕지(道德知)의 실현을 강조하며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성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 **왕수인**]

3단원.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31	왜란			
왜란 이전 정세	명의 동요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관 득세, 향촌 질서 동요 	
		대외	북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보의 변(오이라트부, 예센, <u>1449</u>년) • 경술지변(타타르부, 알탄 칸, 베이징 포위, <u>1550</u>년)
			남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감합</u> 무역 중단(1547) → 왜구가 동남 해안 일대에서 약탈 자행
	장거정의 개혁 (1572 ~ 15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대외 안정 추구 • 토지 조사(장량) 실시, <u>일조편법</u> 확대 시행 • 장거정 사후 관료와 신사층의 불만 증가 	
	조선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구파 형성(1453) ⇨ 사림이 훈구 세력의 부정 비판 ⇨ <u>사화</u>(士禍) 발생(1498 ~) ⇨ 사림의 주도권 장악과 붕당 형성(1575) • 토지 겸병의 심화, 방납의 폐단 등으로 농민 부담 가중 • 오랜 평화와 군역의 문란으로 국방력 약화
		대외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대 외교(1401 ~), 조천사(朝天使) 파견
			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군 6진 개척, 국경 무역소 설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시마 토벌(1419), 삼포 개항(1426), 계해약조(1443) • 삼포왜란(1510), 을묘왜변(1555) 	
	일본	<u>센고쿠</u>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오닌</u>의 난(1467 ~ 1477) 이후 전국 다이묘의 대립 •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 전래(<u>1543</u>년) • 나가시노 전투(오다 노부나가 ⇨ 다케다 가쓰요리, <u>1575</u>년) → 혼노지의 변(아케치 미쓰히데의 모반, 1582)
		<u>도요토미 히데요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고쿠 시대 통일(1590) • 전국적인 토지 조사(검지) 실시, 도량형 통일, <u>무기</u> 몰수령(도수령) • 신분 간 이동 금지, <u>병농분리</u>(조카마치 : 농촌) 확립
왜란의 전개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국내 정치 안정 도모, 영토 확장과 명과의 무역 재개에 대한 일본의 열망 		
	입진왜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의 부산포 급습(1592) ⇨ 한성 함락 ⇨ 평양 함락, 함경도 진격 • 조선 수군(이순신, 한산도 대첩)과 의병(곽재우, 진주 대첩)의 활약 • 명의 원군 파견 →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 ✓ 조공국 보호를 통한 중화 질서 유지(명분), <u>라오동</u> 보호(실제) • 조·명 연합군의 <u>평양성</u> 탈환 ⇨ 명군의 <u>벽제관</u> 전투 패배 ⇨ 명의 제의로 강화 본격화 		
		강화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 공주를 일왕의 후궁으로 보낼 것, 조선의 남부 4도를 넘길 것, 명과의 무역 재개 등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3년에 걸친 강화 협상(1593 ~ 1596) 결렬 	
		정유재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재침략(<u>1597</u>년) •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후 일본군 철수(1598) 	
	영향	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누르하치</u>의 부족 통합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악화, 세금 징수 과정에서 환관의 횡포 심화로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 발생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감소, 국토 황폐화 → 국가 재정 악화 • 명을 숭상하는 분위기 고조(<u>재조지은</u>) • 일본과 국교 재개(1604), 기유약조 체결(쓰시마번에 왜관을 통한 무역 허용, <u>1609</u>년)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키가하라 전투(<u>1600</u>년) ⇨ 에도 막부 수립(도쿠가와 이에야스, <u>1603</u>년) 	

32	호란			
호란 이전의 상황	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르하치의 세력 확장 → 여진 부족 통합, 팔기제 정비 → 후금 건국(1616) • 라오둥 진출을 시도하여 명(明) 압박 		
	조선	광해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립 외교(사르후 전투, 강홍립의 후금 투항, 1619년) 	
	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인 세력이 인조반정으로 광해군 폐위(1623년) → 즉위 • 집권 세력인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 실시 → 후금의 반발 초래 		
정묘호란 (1627)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명배금(親明拜金) 정책, 가도 사건(평안도 철산, 명의 장수 모문룡에 대한 조선의 원조 확대, 1622 ~ 1629), 조선으로부터 경제적 이득 추구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금 흥타이지의 침략 → 황해도 평산까지 침입, 인조의 강화도 피란, 2개월간 지속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 위협 등을 의식한 후금이 형제의 맹약(정묘약조)을 맺고 철수 		
병자호란 (1636 ~ 1637)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금 흥타이지의 칭제건원(稱帝建元), 국호를 ‘청’으로 변경(1636) • 조선에 군신관계 요구 → 조선 내에서 척화주전론과 주화론의 대립 → 주전론 득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태종이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 침략 →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 → 청과 조공·책봉의 군신관계 체결(삼전도의 굴욕, 16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과의 관계 단절, 왕자·신하 등 포로 발생(소현세자, 심양관), 청의 요구로 명과의 항쟁에 필요한 물자와 세폐 제공 • 효종(재위 1649 ~ 1659) 때 존주대의(尊周大義), 복수설치(復讎雪恥)의 북벌론 대두 		
동아시아 질서 재편	중국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성의 반란군이 베이징 점령 → 멸망(1644년)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성의 난 이후 산해관 총병 오삼계 등의 도움으로 베이징 점령 	
			강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위 1661 ~ 1722 • 타이완의 정씨 세력(정성공·정경) 진압(1661 ~ 1683년) • 삼번의 난 진압(1673 ~ 1681년)
			건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위 1735 ~ 1795 • 티베트, 신장, 몽골을 포함하는 영토 확보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멸망 후 조선이 유일한 중화라는 ‘조선 중화주의’ 확산 • 만동묘(萬東廟, 1703), 대보단(大報壇, 1704) 축조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도 막부 → 청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았으나, 조선과는 외교 관계 유지 		

33	문물 교류				
전쟁과 문물 교류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야가(김충선) 등 항왜를 통해 조총 제조, 사신을 통해 화포 제작법 입수 • 귀화한 명의 장수 시문용의 왕릉 조성 기술 전수 •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조선에 담배, 고추 등 작물 전래 • 벨테브레이(1627)·하멜(1653) 등 표류한 서양인을 통해 화포 등 서구 문물 수용 • 소현세자가 청에서 아담 사과 교류 → 천주교 서적 등을 가지고 귀국(1645)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란 당시 조선의 서적, 구리 활자, 불화 등을 약탈 • 유학자(강항), 도공(이삼평) 등을 포로로 끌고 감 		
		사절단의 왕래	통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에서 에도 막부로 파견(1607 ~ 1811) • 학술과 문물 교류 촉진 → 조엄의 고구마 도입(1764) 	
			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자호란 이후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파견 • 청과의 교류 과정에서 북학 운동 대두 	

34	명대의 교역		
명대의 무역 정책	해금 정책	• 민간인이 국외로 나가 무역하는 것을 금지(1371 ~ <u>1567</u> 년)	
	조공 무역	특징	• 정규 조공 사절단에게만 <u>감합</u> 을 발급하여 무역 허가
		방식	공무역
	사무역		• 사절단을 구성하는 사행원 중 역관을 중심으로 한 사적인 교역
	밀무역의 성행	• 해금 정책으로 생계를 위협받던 명의 상인들과 명의 물품을 구입하려는 일본 상인들이 <u>왜구</u> 로 가장하여 밀무역 전개	
	해금 정책 완화	• 16세기 후반 동남아시아 방면의 도항과 무역 허용	
	주변국과의 무역	조선	• 조천사(朝天使)를 통한 공무역(조공 무역) 전개
			• 종이·붓·인삼 등을 수입하고 생사·비단·서적 등을 수출
			• 조선의 사절단에 속한 역관들이 은을 매개로 사무역 전개
		일본	• <u>무로마치</u> 막부와 감합 무역 전개(1404 ~ <u>1547</u> 년)
• 생사·비단·서적 등을 수출하고 금·동·유황·칼 등을 수입			
<u>류큐</u>		• 조공 무역 전개	
	• 중계 무역의 거점으로 성장(∵ 해금 정책)		
	• 해금 정책 완화와 포르투갈 상인의 진출로 중계 무역 쇠퇴		
조선의 대외 교역	일본과의 교역	• 쓰시마 토벌(1419) ⇨ 삼포 개방(왜관 설치, <u>1426</u> 년) ⇨ 계해약조(교역 제한, <u>1443</u> 년) ⇨ 삼포 왜란(<u>1510</u> 년) ⇨ 을묘왜변(1555) ⇨ 국교 관계 단절 ⇨ <u>기유약조</u> 로 교역 재개(1609) ⇨ 초량왜관 설치(부산, 1678)	
		• 쌀과 서적 등을 수출하고, 구리와 유황 등 수입	
	여진과의 교역	• 여진의 사절을 통한 무역 허용 • 국경 일대에 무역소를 두고 여진에 필요한 물품 제공	

35	유럽인의 진출		
포르투갈	• 블라카 점령(<u>1511</u> 년), 마카오 조차권 획득(<u>1557</u> 년), 나가사키 개항(1570), 데지마 상관 건설(1636)		
	• 마카오를 근거지로 일본과 명 사이에서 중계 무역 전개(일본에서 얻은 <u>은</u> 을 이용하여 중국과 교역)		
	• 에도 막부 → <u>선교</u> 문제를 이유로 포르투갈 상인의 입항 금지령(1639)		
에스파냐	• 필리핀 마닐라에 무역 근거지 마련(<u>1571</u> 년)		
	• <u>갈레온</u> 무역으로 아메리카(멕시코 아카풀코)의 은을 중국 상품과 교환		
네덜란드	• 히라도 상관 설치(1609), <u>바타비아</u> 에 교역 거점(1619), 타이완에 식민지 건설(1624)		
	• 에도 막부 → 나가사키 <u>데지마</u> 에서 무역 허용(1641)		
영국	• 18세기부터 청과 본격적으로 교역		
	• 청으로부터 비단·차·도자기 등을 수입하고 목화와 은을 수출		
	• 청은 광저우의 <u>공행</u> 을 통한 제한적 무역 허용(1760 ~)		
	• 18세기 말부터 무역 적자 타개를 위해 <u>아편</u> 무역 전개 → 청의 은 유출 증가		

36 은 유통과 교역		
중국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국 초 보초(寶鈔)와 동전 유통 시도 → 보초에 대한 불신으로 민간 거래에서 은 유통 • 포르투갈, 에스파냐 상인들에 의해 대량의 은 유입 ⇨ 민간에서 은 유통 활성화 ⇨ 세금의 은납화(일조편법)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계령 실시와 해제(1661 ~ 1684년) → 청 상인의 동남아시아, 나가사키 등 진출 • 유럽, 일본과의 교역으로 은 대량 유입 → 지정은제의 전국 시행(1730)
일본	센고쿠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미 은광 개발(1526) • 조선에서 회취법(연은 분리법) 도입(1533) → 이와미 은광의 본격 개발(1539)
	에도 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인장 무역(1604 ~ 1635년) ✓ 일본 상인이 해외 무역 허가증을 발급받아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일본산 은으로 물품 구매 • 크리스티교 차단을 위해 해금 정책 본격화 ✓ 크리스티교 금교령(1612), 제1차 쇄국령(1633), 슈인장 발급 폐지(1635), 포르투갈 상인 입항 금지령(1639),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나가사키에서의 교역 허용(1641) • 신패 발급(1715 ~) ✓ 청의 천계령 해제 후 나가사키에 청 상인의 진출 증가 → 무역량 급증으로 은 유출 심화 → 청 상인에게 무역 허가증을 발급하여 무역량 통제
조선	15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 은 유통 부진, 은광 개발에 소극적
	16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교역 확대로 은의 수요 증가 • 단천연은분리법(= 회취법) 발명(김감불·김검동, 1503년) → 은광 개발 증가 • 1539년(중종 34) 유서종 사건
		왜란 이후

37 서양 문물의 전래			
명·청대	선교사의 활동	마테오리치 (1552 ~ 1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카오 입국(1582년) → 28년간 중국에서 활동 • 『곤여만국전도』 제작(중국인의 세계관 변화에 영향, 1602) • 『천주실의』 저술(크리스티교 교리 문답서, 1603) • 『기하원본』 간행(~ 서광계)
		아담 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1622), 흥천감감정, 청대 역법 개정 주도(시헌력, 1645)
		카스틸리오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1715), 궁정 화가, 원명원(圓明園) 설계
	전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톨릭교회의 포교 허가(1692) ⇨ 전례 문제 발생(1704) ⇨ 크리스티교의 포교 금지와 선교사 추방(1724)
일본	1549	프랜시스코 하비에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티교 포교
	1600	윌리엄 애덤스 (미우라 안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출신의 항해사, 일본 표착 • 에도 막부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 • 네덜란드, 영국과의 통상 및 상관 설치에 기여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착 서양인(벨테브레이·하멜 등), 명·청 사신 등을 통해 서양 문물 수용 • 천리경·자명종 수용(정두원, 1631), 소현세자(아담 샬과 교류), 시헌력 채택(1653), 홍대용(지구 자전설), 정약용(『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 제작)

<p>38 사회 변동</p>	<p>농업 생산력의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 시설 개선, 품종 개량, 농서 보급, 농기구 개량 등 농업 기술 향상 •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등 작물 전래 • 면화, 담배, 고추, 인삼 등 상품 작물 재배 증가 	
<p>인구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 발달(의학 서적 보급 등), 농업 생산력 증대, 장기간의 평화, 구황 작물 재배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중국의 인구 변동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조선의 인구 변동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일본의 인구 변동 〉</p> </div> </div>	
<p>정체 ·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경신 대기근(1670 ~ 1671) • 에도 막부의 교호 대기근(1732 ~ 1733), 텐메이 대기근(1782 ~ 1788) 	
<p>상업 · 수공업의 발달</p>	<p>명 · 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직물, 면직물, 도자기 등 민영 수공업의 발달 • 대운하로 물자 운송(강남 ~ 화북 연결) • 차, 도자기 수출로 경제적 번영
	<p>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구(浦口) · 장시(場市) 성장 • 대동법 실시(1608 ~)로 공인이 등장하여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촉진 • 상평통보 전국 유통(1678)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 · 은 채굴 증가, 견직물 · 도자기 · 술 등 특산물 생산, 육상과 해상 교통로 정비
<p>대상인의 출현</p>	<p>명 · 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시 상인과 휘저우(신안) 상인 ✓ 면화 · 쌀 · 목재 · 직물 등의 유통망 확보, 동향인 중심으로 회관(會館) 설립
	<p>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상(의주), 송상(개성), 내상(동래) 등이 무역 활동 주도 • 경강상인은 서 · 남해 연안과 한강에서 쌀, 소금, 목재, 어물 등 거래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닌(도시에서 활동한 상인과 수공업자)의 성장 • 에도 상인, 오사카 상인 등 대상인의 활동
<p>도시의 성장</p>	<p>명 · 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최대 소비 도시), 쑤저우(최대 상공업 도시, 『성세자생도(盛世滋生圖)』) • 시진(市鎮)의 성장 → 교통의 요지에 형성된 업종별로 전문화된 상공업 도시
	<p>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이 정치 · 행정 · 군사의 중심이자 상업 도시로 발전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킨코타이 제도 ✓ 막부가 다이묘 통제를 위해 실시, 교통 · 숙박업 발달, 에도가 소비 도시로 성장 • 조카마치 → 다이묘(영주)가 거주하는 성(城)을 중심으로 형성, 상업 도시로 발전 • 에도 막부의 직할령인 에도, 오사카, 교토 등이 대도시로 발전

긴 다리 일곱 개를 지나서 비로소 오사카에 당도하니, 곧 모든 배가 정박하는 곳이었다. …… 길 양쪽의 긴 건물 중 중층의 집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이것은 온갖 물건을 파는 점포였다. …… 에도 길 옆에 있는 회랑은 모두 상점이었다. …… 여러 사람의 눈이 뻑뻑하여 한 치의 빈틈도 없고, 옷자락에는 꽃이 넘치고, 주렴 장막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오사카와 교토보다 세 배는 더하였다.

- 신유한(1681 ~ 1752), 『해유록(海游錄)』

39 서민 문화의 성장

명·청대	배경	• 상공인의 성장과 도시 인구 증가로 유흥과 오락·소비문화의 확대, 종교 시설의 행사나 축제 및 대규모 공연 등도 발달	
	발전	소설	• 『삼국지연의』·『서유기』(명), 『 <u>홍루몽</u> 』(청) • 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인쇄술과 출판업의 발달
		<u>경극</u>	• 청대 베이징에서 유행(‘베이징의 오페라’라 불림) • 황실과 상인이 극단 지원
		연화(年畵)	• 귀신을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풍습에 따라 그려진 그림
조선	배경	• 상공업 발달, 서민 교육의 확대(서당)와 의식 성장	
	발전	문학	• 한글소설, 판소리(춘향가·심청가·흥부가 등), 사설시조
		가면극	• 탈춤, 산대놀이 → 양반층의 위선이나 사회 문제를 풍자
		미술	• <u>풍속화</u> (김홍도·신윤복), 민화(문자도·호작도 등)
에도 막부	배경	• 막부의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 교육 확산(테라코야, 1690년대), 조난층의 성장	
	발전	<u>가부키</u>	• 노래, 춤, 연기를 결합한 대중 연극 → 하나미치(길)·마와리부타이(무대) • 무사의 복수나 남녀 간의 사랑 등을 다룬 통속적인 내용
		<u>우키요에</u>	• 인물, 풍속, 경치 등을 그린 채색 목판화 • 유럽 인상파 화가에 영향
		<u>분라쿠</u>	• 다양한 역할의 인형을 조종하여 동작과 표정 연기 → 전통 인형극



<경극>



<연화>



<가부키>



<우키요에>

40 새로운 학문 대두

명·청대	명말청초	• 성리학파 양명학에 대한 반발과 현실 개혁적 학문 경향 등장, 서양 학문의 유입	
		• <u>경세치용</u> ·실사구시의 학문 연구	
		✓ 농학, 지리학, 의학, 역법 등 실용적 학문 ✓ 『본초강목』(이시진, 1596), 『천공개물』(송응성, 1637), 『농정전서』(서광계, 1639) 편찬	
		• 황종희(1610 ~ 1695), 고염부(1613 ~ 1673) 등이 연구 → <u>고증학</u> 발달에 영향	
청	<u>고증학</u>	• 실증적 방법으로 경전이나 금석문 연구 • 『 <u>사고전서</u> 』(1782) 등 대규모 편찬 사업으로 발달	
	공양학	• 청 말에 대두, 『 <u>춘추공양전</u> 』 연구를 통해 개혁적 성향의 학자들 등장 • 변법자강 운동에 영향	
조선	실학	등장	• 17 ~ 19세기, 조선 사회의 개혁 주장
		구분	중농학과 • 이익·정약용, 토지 개혁을 통한 농민 생활 안정 추구 중상학과 • 박지원·박제가, 상공업 진흥과 청 문물 수용, 소비 촉진
	양명학	• 정제두(1649 ~ 1736) 등 소론 학자들에 의해 연구, 실천 강조	
	<u>국학</u>	• 조선의 역사·지리·언어 분야 연구, 『발해고』·『택리지』 편찬, 대동여지도 제작	
	서학	• <u>연행시</u> 를 통해 전래, 천문·역법·기계 제작에 영향, 학문으로 크리스티교 수용	

▣ 경세치용(經世致用) 학문의 발전

- 옛날에는 천하 사람이 주인이고 군주는 객이었다. 군주가 일생 동안 경영한 것은 천하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가 객이 되었다. 무릇 천하가 안녕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군주 때문이다. …… 만약 군주가 없다면 사람들이 각자의 이로움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황중희(1610 ~ 1695),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
- 유학의 흐름이 …… 이상한 행동을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하게 되었다. 성인(聖人)이란 천자(天子)이며, 천자는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자신의 직분으로 한다. 따라서 성인의 도란 바로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도라는 본래의 뜻을 어느 틈엔가 잊어버렸다.
 - 오규 소라이(1666 ~ 1728), 『태평책(太平策)』
- 백성이 살면서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어 해결을 보지 못하자 공정한 말을 잘하는 한 노인을 찾아가서 해결을 보았다. 사방의 이웃들이 다 감복하여 그 노인을 추대하여 이정(里正)으로 삼았다. …… 이상과 같은 사정과 순서를 밟아서 …… 여러 고을의 우두머리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지방 장관을 정했고, 또 이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황왕(皇王)이라 하였으니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 정약용(1762 ~ 1836),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 명 말·청 초의 정치 사상가
청 대의 개혁 사상은 황중희(1610~1695), 고염무(1613~1682), 왕부지(1619~1692) 등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청이 안정기에 들어간 이후로는 억압을 받았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고전의 고증을 위주로 하는 고증학이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세학은 다시 주목을 받아 공양학이 널리 유행하였다.



▲ 홍대용(1731~1783)
청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으나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북학의',
박제가가 저술한 책으로, 소비를 통해 생산이 증대되고 생산의 증대를 통해 부가 축적된다고 밝혔다.



▲ 이시다 바이간(1685~1744)
조난 출신으로 상인의 정당한 이익 추구를 인정하였다. 그의 사상은 교토와 오사카에서 커다란 사회 세력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 오규 소라이(1666~1728)
당시 상인들에 의해 압박받고 있는 무사와 농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사를 정화시키고 호적을 작성하여 농민이 도시로 가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해체신서',
1774년 스키타 겐파쿠가 네덜란드어로 된 해부학 서적을 번역한 것으로, 한문으로 번역되지 않은 서양 서적을 최초로 번역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스키타 겐파쿠(1733~1817)
에도 시대 '해체신서' 번역을 주도하여 난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40	새로운 학문 대두	
에도 막부	고학	• <u>성리학</u> 극복을 위해 공자·맹자 시대 유학으로 복귀 주장
		• 이토 진사이(1627 ~ 1705) ✓ 주자학을 비판하고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직접 연구
		• <u>오규 소라이</u> (1666 ~ 1728) ✓ 중국 고대 성인의 도를 밝히고 육경(六經)을 강조
		• 일본의 언어, 문학, 신화 등을 통해 일본 고대의 참모습 강조 → 외래 사상 비판
	국학	• <u>모토오리 노리나가</u> (1730 ~ 1801) ✓ 『고사기』를 연구하여 『고사기전』 저술(1798) ✓ 일본 우월주의, <u>존왕</u> 운동에 영향
		•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재위 1716 ~ 1745)의 개혁
		• <u>나가사키</u> 를 통해 의학, 지리학, 천문학 등 서양 학문 수용
		• 데키주쿠 설립(난학 교습소, 1838)
	난학	• 마에노 료타쿠, 스키타 겐파쿠 등의 주도로 『 <u>해체신서</u> 』 간행(1774) → 본격적인 발전
		• 경험적·실증적 학문 방법론 발전

4단원.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41 동아시아의 개항				
중국	아편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이 대청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산 아편을 밀수출 청의 아편 중독자 증가, <u>은</u> 유출에 따른 재정 악화 		
	아편 전쟁	제1차 (1840 ~ 42)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이 <u>입칙서</u>를 광저우에 보내 아편 단속(1839) ⇨ 아편 전쟁 발발(⇨ 영국, 1840) ⇨ 청 패배(1842)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u>난징</u> 조약 체결(1842) ✓ <u>상하이</u>, 닝보, 푸저우, 샤먼(아모이), 광저우 개항 ✓ <u>홍콩</u> 할양, <u>공행</u> 무역 폐지, 정해진 출입 <u>관세</u> 설정 후면 추가 조약(1843) ✓ 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 허용
		제2차 (1856 ~ 60)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의 무역 확대 요구, 프랑스 선교사 피살 사건, <u>애로호</u> 사건(광저우, 1856) ⇨ 영·프 연합군의 침공(1856)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u>텐진</u> 조약(1856) ✓ 뉴장, 덩저우, 한커우, 타이난 등 10개 항구 추가 개항 ✓ <u>크리스티고</u> 포교 자유 인정 ✓ 서양 외교관의 <u>베이징</u> 주재 허용 <u>베이징</u> 조약(1860) ✓ 텐진 조약 비준, 텐진 개항, 영국에 주룽 반도 할양
	일본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도 막부의 해금(쇄국) 정책 고수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외세에 대한 방어 태세 강화 미(美) 페리 함대의 함포 외교(1853) 	
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일 화친 조약(<u>1854년</u>) ✓ 시모다·하코다테 개항, <u>최혜국</u> 대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일 수호 통상 조약(<u>1858년</u>) ✓ 미국의 자유 무역 요구 → 가나가와, <u>나가사키</u>, 니가타, 효고 등 4개 항구 개방 ✓ 협정 관세, <u>영사 재판권</u>(치외법권) 등 명시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세기 이후 포르투갈(1540), 네덜란드(1630) 등 서양 각국과 교역 선교사 살해 사건을 구실로 프랑스의 군대 파견(1858) 		
베트남	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사이공 조약(<u>1862년</u>) ✓ 다낭·바랏·꽝옌 등 3개 항구 개방, 비엔호아·자딘(호찌민)·딘뜨엉 3개주 할양 ✓ 선교의 자유, 전쟁 배상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사이공 조약(<u>1874년</u>) ✓ 하노이·하이퐁·꾸이년 등 3개 항구 개방 ✓ 영사 재판권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u>흥선대원군</u>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1863 ~ 1873) → 프랑스, 미국의 침략 방어 고종의 친정(1873) 이후 통상 개화에 대한 관심 고조 윤요호 사건(경기 연해, <u>1875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일 수호 조규(= <u>강화도</u> 조약, 1876) ⇨ 개항 반대(최익현 등 위정척사 사상가) ✓ 조선의 자주국 명시, <u>부산</u> 외 2개 항구 개항 ✓ <u>영사 재판권</u> 등 규정 		
조선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u>흥선대원군</u>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1863 ~ 1873) → 프랑스, 미국의 침략 방어 고종의 친정(1873) 이후 통상 개화에 대한 관심 고조 윤요호 사건(경기 연해, <u>1875년</u>) 		
	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일 수호 조규(= <u>강화도</u> 조약, 1876) ⇨ 개항 반대(최익현 등 위정척사 사상가) ✓ 조선의 자주국 명시, <u>부산</u> 외 2개 항구 개항 ✓ <u>영사 재판권</u> 등 규정 		

42	근대화 운동			
중국	태평천국 운동 (1851 ~ 18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전 주도, 상제회 조직(1843), 진덴춘 봉기 → 태평천국 건설(난징, 1853) • 청 왕조 타도(별만흥한), 평등사회 건설, 천조전무(天朝田畝, 토지 균분) • 서양의 개입과 한인 관료, 신사 층에 의해 진압 		
	양무운동 (1861 ~ 1894)	배경	•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 운동 진압 과정에서 서양 무기의 우수성 절감	
		주도	• 증국번(1811 ~ 1872), 이홍장 (1823 ~ 1901) 등 한인 관료층	
		논리	• 중체서용 (중국의 전통을 근본으로 삼고 서양의 과학 기술 수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식 무기와 군함(북양 함대의 진원함) 도입 • 금릉기기국(난징, 1865) 등 군수 공장 설립 • 기선 회사, 방직 공장 등 근대적 기업 설립 • 동문관(同文館) 설립(1862) 	
한계	• 중앙 정부의 체계적 지원 부족, 양무파의 분열, 청일 전쟁의 패배			
일본	대정봉환 (18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 이후 경제 혼란 ⇨ 반(反)막부 세력이 존왕양이 운동 전개(사쓰마번, 조슈번의 비밀 군사 동맹, 1866년) ⇨ 막부의 탄압을 받고, 서양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패배 ⇨ 서구 문물 수용과 막부 타도 운동으로 전환 • 16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막부 폐지 선언 → 공의정체(公議政體) 표방 		
	왕정복고	• 무쓰히토 일왕(재위 1867 ~ 1912) 중심의 메이지 정부 수립(1868)		
	메이지 유신 (1868 ~ 1912)	논리	• 문명개화 (文明開化) 강조, 일왕 중심의 근대 국가 수립 추구	
		개혁	내정	• 도쿄 천도(1869), 폐번치현 (1871), 신분제 폐지, 교육 확대(소학교 의무 교육, 1872), 징병제(1873), 서양식 공장 설립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청일 수호 조규 체결(1871년) • 이와쿠라 사절단(불평등 조약 개정과 문물 시찰, 1871) • 정한론(1869), 타이완 침공(1874), 류큐 병합(1879년)
조선	통리기무아문 (1880 ~ 18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최초의 근대적 행정 기구로 개화 정책 주도 • 별기군 설치(1881), 조사시찰단·영선사 파견(1881) 		
	임오군란 (18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식 군인 주도, 개화 정책에 반발 • 청의 개입과 진압 → 정치 고문, 외교 고문 파견 등 영향력 강화 • 개화 세력의 분화 → 온건파(동도서기) : 급진파(문명개화·서도서기) 		
	갑신정변 (1884)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프 전쟁(1884 ~ 1885)을 틈타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의 정변 시도 •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 	
		개혁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 간섭 배제 • 메이지 유신 모방 ✓ 인민평등권 확립, 근대적 내각제 도입, 조세 제도 개혁 등 	
	갑오개혁 (1894 ~ 1895)	배경	• 청일 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지원을 받은 개화 세력이 정권 장악	
		개혁	• 왕실과 정부 사무의 분리, 근대적 내각제 수립, 조세 제도 합리화, 신분제와 과거제 폐지 등	
을미개혁 (1895)	배경	• 삼국간섭 이후 일본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개혁 강요		
	내용	• 단발령 시행, 태양력 채용(1896)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일 의병 발생 • 아관파천(1896, 2月)으로 개혁 중단 		

43 국민 국가 수립					
일본	자유 민권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 제출(1874년) ✓ 서양식 의회 제도의 도입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 본격화 • 메이지 정부의 대응 ✓ 자유 민권 운동을 탄압하였으나 서양식 정치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 • 우에키 에모리의 헌법 초안 작성(1881) • 이토 히로부미 등 조슈번 지사들의 집권(1881) → 의회 설립과 헌법 제정 약속 			
	대일본제국헌법 (18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왕 중심의 흥정헌법(欽定憲法), = 메이지 헌법 • 입헌적 국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일왕 → 신(神)이면서 동시에 군주(君主)라고 하는 이중적 성격 부여 • 중의원 선거 실시 → 제국의회 개설(1890. 11월) 			
조선	독립 협회 (1896 ~ 1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중 계몽 운동 ✓ 독립신문 발행(1896 ~ 1899) • 자주 국권 운동 ✓ 만민 공동회 개최(1898. 3월), 열강의 이권 침탈 비판(이권 수호 운동 전개) • 자강 개혁 운동 ✓ 관민 공동회(1898. 10월), 의회 개설 운동, 헌의 6조 건의 • 보수파 관료들의 모함(익명서 사건) →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 			
	대한 제국	<table border="1"> <tr> <td>수립</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미사변(1895. 8월) ⇨ 아관파천(1896. 2월) ⇨ 독립 협회 등의 환궁 요구 ⇨ 경운궁 환궁(1897. 2월) ⇨ 대한 제국 수립(1897. 10월) </td> </tr> <tr> <td rowspan="2">광무개혁 (구본신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적 회사 설립, 상공 학교 등 근대 학교 설립 • 대한국 국제 반포(9개조, 1899년) ✓ 만국공법에 기반(제1조), 전제군주정 국가 표방(제2조) </td> </tr> </table>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미사변(1895. 8월) ⇨ 아관파천(1896. 2월) ⇨ 독립 협회 등의 환궁 요구 ⇨ 경운궁 환궁(1897. 2월) ⇨ 대한 제국 수립(1897. 10월) 	광무개혁 (구본신참)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미사변(1895. 8월) ⇨ 아관파천(1896. 2월) ⇨ 독립 협회 등의 환궁 요구 ⇨ 경운궁 환궁(1897. 2월) ⇨ 대한 제국 수립(1897. 10월) 				
광무개혁 (구본신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적 회사 설립, 상공 학교 등 근대 학교 설립 • 대한국 국제 반포(9개조, 1899년) ✓ 만국공법에 기반(제1조), 전제군주정 국가 표방(제2조) 				
	중국	변법자강 운동 (1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일 전쟁 패배 이후 Kangyuei, 랑치차오 등이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의회 도입을 비롯한 정치 개혁 운동 전개, 제도국 개설, = 무술변법(100일 변법) • 광서제의 지원(☉, 재위 1875 ~ 1908) ⇨ 보수파의 반격(위안스카이, 무술정변) 		
신정 (1901 ~ 1908)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단 운동(1899 ~ 1901) 실패 이후 개혁 요구 고조 • 개혁 세력 분화 ✓ 혁명파(쑨원, 공화제 수립) : 입헌파(Kangyuei, 의회제 수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식 군대 편성, 과거제 폐지 • 입헌파의 주도로 『흥정 헌법 대강』 발표(1908년) → 전제 군주제 유지 		
신해혁명 (1911 ~ 1912)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쑨원 중심의 혁명파가 중국(혁명)동맹회 조직(도쿄, 1905년) ✓ 삼민주의를 강령으로 청 왕조 타도 및 공화제 수립 시도 • 청 정부의 민영 철도 국유화 조치 시행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국유화 반대 투쟁 전개(보로 운동) • 혁명파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우창 신군의 봉기 → 각 성의 독립 선언 • 중화민국 수립(난징, 1912. 1월) → 쑨원, 임시 대통령 취임 • 공화제 실시와 청 황제 퇴위를 조건으로 위안스카이와 타협 → 청 왕조 멸망(1912. 2월) → 위안스카이 대통령 취임(1912. 3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스카이의 제정 부활 시도(1913 ~ 1915) → 사후 군벌 난립(1916) 			

44	서구적 세계관		
만국공법	개념	• 서양 국가들이 구축한 국제법 질서, 주권국 간의 대등한 관계 지향	
	특징	• 모든 국가를 문명국, 반문명국, 미개국으로 서열화 → 불평등 조약과 침략 합리화	
	각국의 수용	청	• 헨리 휘튼의 저서를 윌리엄 마틴이 한역(漢譯), 1864 • 중화(中華)를 자처하며 서양 열강과의 외교 실무 지침서로 사용
		일본	• 서양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근거로 활용 • 중국 중심의 질서 거부 → 강화도 조약의 제1관(조선 = 자주국)
			조선
	사회 진화론	개념	• 인간 사회에 약육강식, 자연도태의 원리 적용 →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 정당화
특징		• 동아시아 각국에서 자강 의 논리로 수용	
각국의 수용		일본	• 후쿠자와 유키치(1835 ~ 1901) ✓ 탈아론 (脫亞論) 주장(1885)
			• 가토 히로유키 (1836 ~ 1916) ✓ 자유 민권 운동 비판, 일왕에 대한 충성 강조 ✓ 제국주의 팽창 정당화(『강자의 권리와 경쟁』, 1893)
			• 변법자강 운동에 영향(량치차오, 『음빙실문집』)
		중국	• 옌푸(1854 ~ 1927) ✓ 『진화와 윤리』(토머스 헉슬리)를 번역하여 『천연론』 출간(1898년) ✓ 부국강병의 중요성 주장
	조선		• 유길준(1856 ~ 1914) ✓ 경쟁의 중요성 강조(『경쟁론』, 1883)
			• 애국 계몽 운동에 영향 → 교육과 산업을 진흥하자는 논리로 활용

- 백인이라는 우월한 인종이 야만스러운 미개인들과 침략, 약탈 전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세계 전체의 진화를 촉진하는 자연 선택 법칙에서 나온 것이다.
 - **가토 히로유키**, 『천측백화(天則百話)』
- 우리는 이웃 나라의 개화를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번영시킬 여유가 없다. 서양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 일본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고, 아시아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 **후쿠자와 유키치**, 탈아론(脫亞論)
- 대개 인생의 만사가 경쟁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크게는 천하와 국가의 일부터, 작게는 한 몸 한 집안의 일까지 실로 다 경쟁으로 말미암아 먼저 진보할 수 있는 바라.
 - **유길준**, 『경쟁론』

45	근대 지식의 확산		
신문	역할	• 국내외 소식의 전달, 민권 관념의 보급, 여론 형성 등에 기여	
	각국의 신문	청	• 영국 상인이 상하이 에서 신보 창간(1872년) • 등록제, 검열제 등으로 탄압 →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조계 에서 발행
			일본
		조선	
			• 통감부의 신문지법 제정(1907) → 언론 탄압

46 근대 교육의 확산			
청	1898	• <u>베이징</u> 에 경사대학당 설립	
	1902	• 근대 학제 마련	
일본	<u>1872</u>	• 근대 학제 제정 → 소학교 <u>의무</u> 교육 제도 도입	
	<u>1877</u>	• 도쿄 대학 설립	
	1890	• <u>교육 칙어</u> 반포 → 일왕에 대한 충성 강조	
조선	1886	• <u>육영공원</u> 설립 → 조선 최초의 근대적 관립 학교	
	<u>1895</u>	• 교육입국 조서 반포 →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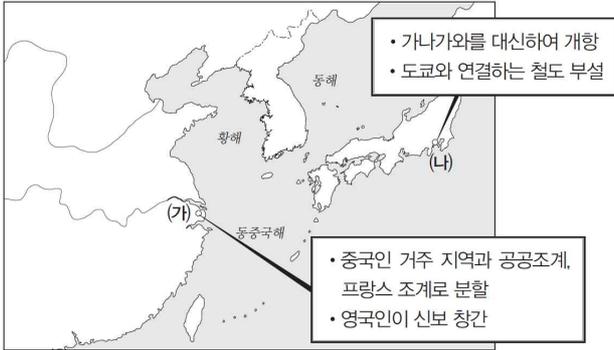
- 짐이 생각하건대 …… 나의 신민도 열심히 충효에 힘써 마음을 하나로 하여 대대로 그 미덕을 배워 온 것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점이며 교육의 근본정신도 또한 여기에 있다. …… 항상 헌법을 중시하고 법률에 따라 한 차례 나라의 비상시가 되면 의용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하며 천지와 같이 끝없는 황실의 운명을 지키고 도와줘야 한다. - 『법령전서』
-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 어렵다. 세상 형편을 돌아보면 부유하고 강성하여 독립하여 응시(雌視)하는 여러 나라는 모두 그 나라 백성의 지식이 개명(開明)하였다. 지식의 개명함은 교육이 잘됨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니,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 이제 내가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설치하고 인재를 양성함은 모두 신민의 학식으로 국가의 중흥에 큰 공을 세우게 함이다. 신민은 충군 애국하는 마음으로 덕(德), 체(體), 지(智)를 함양하라. 왕실의 안전함도 신민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함도 신민의 교육에 있다. - 『한말 근대 법령 자료집』

47 여성의 권리 신장			
특징	• ‘현모양처’ 육성을 목표로 각국에서 여학교 설립 → 점차 여성 권리 의식 향상		
각국의 여성 운동	일본	• 부인 교풍회 주도	
		• 히라쓰카 라이초(1886 ~ 1971) ✓ 여성 해방 주장, 잡지 <세이토> 창간(여성 문예지, 1911)	
	대한 제국	• 북촌 양반 부인들의 <u>여권통문</u> (여학교 실시 통문) 발표(1898) → 순성여학교 설립	
	중국	• 신해혁명과 신문화 운동 이후 여성 권리 신장 요구 증가	

48 근대 도시의 형성			
<u>조계</u> (거류지)	• 개항장에 외국인의 거주와 영업이 허용된 지역 → <u>치외법권</u> 적용		
	• 전신, 전화, 전차 등 서구 문물의 수용 통로로 기능		
각국의 도시화	청	<u>상하이</u>	• 개항 도시(<u>난징</u> 조약)
			• 와이탄(外灘) 주변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조계 존재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프랑스 조계, 1919)
			• 경제·문화 중심지
	조선 (대한 제국)	부산·인천	• 개항장(<u>강화도</u> 조약, 1876·1883), 외국인 거류지 형성
		한성	• 외국인 거주 증가, 황성(皇城) 만들기 사업 추진
	일본	<u>요코하마</u>	• 개항 도시(미일 수호 통상 조약, 가나가와 대신 개항, 1858)
			• 도쿄와 철도로 연결(1872)
• 상하이, 샌프란시스코와 연결되는 항로 개설			
도쿄		• 에도 개칭(1868), 왕궁 천도(1869), 부국강병의 도시	
			• <u>긴자</u> 에 서양식 거리 조성

오늘도 역사를 합시다!!

▣ (가) 상하이, (나) 요코하마



49	철도 부설	
청		• 열강의 경제적 · 군사적 침탈, 크리스티고 전파 및 풍수 문제 등을 우려하여 부정적
		• 국가 정책으로 철도 부설(<u>1889</u> 년)
		• <u>청일</u> 전쟁 이후 열강이 철도 부설권 침탈 → 이권 회수 운동 확산
		• <u>신축</u> 조약 체결(1901) 이후 철도 부설권 대부분이 열강에 양도
일본		• 문명의 이기로 보고 일찍부터 관심 → 도쿄 ~ 요코하마 노선 개통(<u>1872</u> 년)
		• 침략 위해 타이완, 조선에 철도 부설
		• <u>러일</u> 전쟁 이후 남만주 철도 확보 → 일본, 한반도, 만주를 연결하는 침략의 발판 마련
대한 제국		• 일본에 의해 철도 건설
		✓ 경인선(노량진 ~ 제물포, <u>1899</u> 년)
		✓ 경부선 · 경의선(<u>러일</u> 전쟁에서 일본의 병력과 물자 수송에 활용됨, 1904 ~ 1906)
		• 철도 부설 과정에서 토지 약탈, 노동력 착취 → 의병이 철도 공사장 공격

50	서구 생활 방식		
	의복	• 서양식 복장과 단발 확산	
	서양식 시간관념의 도입	일본	• <u>1873</u> 년
		조선	• 을미개혁(1895. 11. 17 → 1896. 1. 1)
		중국	• <u>1912</u> 년
		• 하루를 24시간, 일주일을 7일로 하는 전국 공통의 시간관념 확산	

51	제국주의 침략(1)	
청일 전쟁 (1894 ~ 1895)	배경	• 임오군란,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청 · 일의 대립 격화
	전개	• <u>동학 농민</u> 운동(1894. 3 ~ 12월) 당시 청 · 일 양국군 파병
		• 조선의 철병 요구를 무시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군 공격 → <u>풍도</u> 해전 • 평양 전투 ⇨ 일본군의 휘순 점령 ⇨ <u>웨이하이웨이</u> 전투에서 일본 승리
	결과	• <u>시모노세키</u> 조약(1895. 4월)
		✓ 청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
		✓ 일본에 <u>랴오둥</u> 반도, 타이완과 평후 제도 할양
✓ 막대한 배상금 지불(고평은 2억 냥)		
	• 삼국 간섭(1895. 5월)	
	✓ 일본이 <u>랴오둥</u> 반도 반환 → 러시아, 일본 간의 대립 본격화	
	•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붕괴	

▣ **시모노세키 조약**

- 제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제2조 청국은 아래에 기록한 토지의 주권 및 해당 지방에 있는 성루, 무기 공장과 모든 공공 기물을 영원히 일본국에 할양한다.
 1. 봉천성 남부의 땅
 2. 타이완 전체와 그에 딸린 여러 섬(평후 제도)
 제4조 청국은 배상금으로 고평은 2억 냡을 일본국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52	제국주의 침략(2)		
	의화단 운동 (1899 ~ 1901)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일 전쟁 이후 청에 대한 열강의 이권 침탈 가속화 ✓ 자오저우만(독일), 뤼순·다렌(러시아, 1898), 웨이하이웨이(영국, 1898) 조차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둥에서 의화단이 부청멸양을 내걸고 봉기 → 교회, 철도 등 공격 • 텐진, 베이징 등지로 확대 • 영국, 미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 8개국 연합군의 베이징 점령(1900) • 러시아 군대의 만주 주둔(1900)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 조약(베이징 의정서, 1901) ✓ 배상금 지불,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 허용 	

53	제국주의 침략(3)		
	러일 전쟁 (1904 ~ 1905)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군대의 만주 주둔(1900) ⇨ 러·일 간의 갈등 고조 ⇨ 제1차 영일 동맹 체결(런던, 1902)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러시아 군함 선제공격(뤼순·제물포, 1904. 2월) •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의 우세(가쓰라·태프트 밀약, 제2차 영·일 동맹)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츠머스 강화 조약(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중재, 1905. 9월) ✓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위 확보 ✓ 일본 → 뤼순·다렌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에 대한 이권 확보 ✓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 차지 • 일본의 대한 제국 강제 병합 ⇨ 저항(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 전개) ✓ 을사늑약(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보호국화, 1905. 11월) ✓ 한일 병합(주권 강탈, 총독부 설치, 1910. 8월) 	



54	제국주의 침략(4)		
제1차 세계 대전 (1914 ~ 19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일 동맹(1902·1905)을 구실로 일본의 참전 ✓ 독일의 조차지였던 칭다오 일대 점령 → 중국에 ‘21개조 요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강화 회의(1919 ~ 1920) ✓ 미국 윌슨 대통령의 14개조 평화 원칙 제시 ✓ 연합국의 승리로 베르사유 조약 체결(1919. 6월) ✓ 열강이 산둥반도에 대한 일본의 권리 인정 ⇨ 중국의 반발 ⇨ 5·4 운동 발생 		
워싱턴 회의 (1921 ~ 1922)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문제 등을 둘러싼 열강 간의 갈등 조정 • 일본 등 5개국의 해군 군비 축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일 동맹 폐기 • 일본이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중국에 반환 •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결정 • 열강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회 균등 보장 	

■ **21개조 요구**

- 산둥반도의 독일 이권을 일본에 양도한다.
- 일본이 뤄순, 다롄을 조차하는 기간을 99년으로 연장하고, 남만주 등에서의 이권을 인정한다.
- 중국의 항만, 섬을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에 할양·조차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일본인의 정치·재정·군사 고문과 일본인 경찰관을 초빙한다.

55	민족 운동		
한국	3·1 운동 (1919)	배경	• 일제의 무단 통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전개	• 만세 시위가 전국, 국외로 확산 → 일제의 무력 진압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 통치 실시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상하이, 1919. 9월) ✓ 민주 공화제 채택, 외교 활동 전개(구미 위원부)
	무장 투쟁	독립군	• 만주에서 항일전 전개 →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승리(1920)
의열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원봉 주도로 결성(만주 길림, 1919) ✓ 주요 인물 암살과 식민 통치 기관 파괴(7가살 5파괴) 	
유일당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갈등 극복 노력 • 좌우 합작으로 신간회 결성(1927년) 	
중국	5·4 운동 (1919)	배경	• 신문화 운동(1915 ~), 3·1 운동, 파리 강화 회의의 외교 실패
		전개	• 베이징 대학생들이 반군벌 ·반일 시위 전개 → 각지로 확산
		결과·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군벌 정부의 베르사유 조약 조인 거부 • 중국 국민당 조직(쑨원, 1919), 중국 공산당 창당(천두슈, 1921)
	국공 합작(1)		• 군벌 타도를 위해 쑨원 이 소련의 지원을 받아들여 중국 공산당과 제휴(1924년)
국민 혁명 (1926 ~ 1928)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0 사건(상하이, 1925) → 반제국주의·반군벌 분위기 고조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쑨원 사후(1925) 장제스의 북벌 개시(1926. 7월) ⇨ 상하이 사변(1927. 4. 12) ⇨ 제1차 국공 합작 결렬(1927. 7월) ⇨ 난징 국민 정부 수립(1928. 2월) ⇨ 지난 사건(일본군의 제3차 산둥 침략, 1928. 5월) ⇨ 국민 혁명군의 베이징 점령 ⇨ 북벌 완수(1928. 12월) 	

56 침략 전쟁의 확대			
만주 사변 (1931)	배경	• 대공황(1929)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 일본 군부와 우익 세력의 대외 침략 주장	
	전개	• 류타오거우 사건 ⇨ 관동군의 만주 일대 점령 ⇨ <u>만주국</u> 수립(푸이 수상, 1932)	
	결과	• 국제 연맹의 리튼 조사단 파견 → 일본의 행위 규탄 및 군대 철수 요구 • 일본의 국제 연맹 탈퇴(1933)	
중일 전쟁 (1937)	전개	• <u>루거우차오</u> 사건(베이징 교외, 1937) ⇨ 일본군의 중국 본토 침략 ⇨ 상하이·난징 등 주요 도시 함락과 민간인 학살(<u>난징 대학살</u>)	
	중국의 대응	• 제2차 국공 합작 성립, <u>충칭</u> 으로 수도 이전 → 항일전 지속	
태평양 전쟁 (1941 ~ 1945)	배경	• 제2차 세계 대전 발발(1939년) 이후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공(1940) → <u>미국</u> 이 일본으로의 석유와 철강 자원 수출 금지	
	전개	• 하와이 <u>진주만</u> 기습(1941) ⇨ 일본군이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일대 점령 ⇨ <u>미드웨이</u> 해전에서 미국의 승리로 전세 역전(1942)	
		•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투하(1945. 8. 6) ⇨ 소련의 대일전 참전(8. 8) ⇨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8. 9)	
결과	• 일본의 무조건 항복(1945. 8. 15)		
전쟁의 피해와 고통	국가 총동원법 (1938)	•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일본 본토와 식민지에 적용 • 식민지에 대한 민족 말살 통치 강화	
	전쟁 피해	인적 피해	• 중일 전쟁 당시 난징 대학살, <u>삼광</u> 작전 등으로 사상자 발생 • 지원병, 징용, 징병 등으로 청년들이 노동자나 병사로 강제 동원 • 각국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 나 군수 공장 노동자로 강제 동원
		물적 수탈	• 식민지 조선, 만주국 등지에서 곡물·금속 등 강제 공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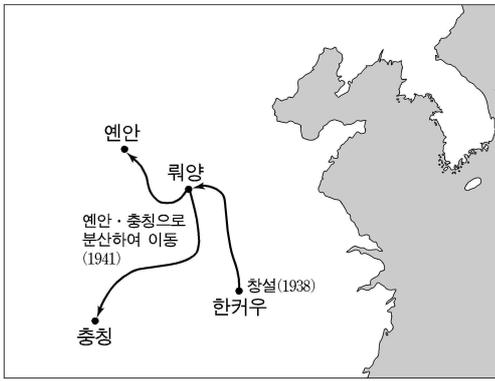
▣ 리튼 조사단의 보고서

1. 동북(만주) 지역은 원래부터 중국의 일부이다.
2. 일본군의 행위는 합법적인 자위 수단으로 볼 수 없다.
3. (만주국) 정부의 수반은 명목상 만주인이지만, 실권은 일본 관리와 그 고문들의 손에 놓여 있다. 현지의 중국인들이 보기에 만주국은 완전히 일본인을 위한 도구이다.

57 한·중 연대(❶)			
만주 사변 이후	만주	• <u>조선혁명군</u> (1929 ~) ✓ 남만주 일대에서 중국의용군과 연합 ✓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 한국독립군(1930 ~) ✓ 북만주 일대, 중국호로군과 연합 ✓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 동북 항일 연군(1936 ~) ✓ 한·중 사회주의 세력의 연대 → 항일 무장 투쟁 전개	
		•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u>상하이</u> , 1931 or 1932) ✓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중국 국민당 인사들이 결성한 비밀 결사	
	중국 본토	• 한인 애국단(1931 ~) ✓ 이봉창 의거(도쿄, 1931) ✓ 윤봉길 의거(<u>상하이</u> 흥커우 공원, 1932)	

57	한·중 연대(2)	
제2차 국공 합작 (1937 ~ 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국민당의 공산당 탄압 →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루이진 ~ 옌안, <u>1934 ~ 1936</u>년) <u>시안 사건</u>(장쉐량이 장제스를 감금하고 국공 내전의 정지와 거국일치에 의한 항일 요구, 1936) 중국 공산당의 국공 합작 공포를 위한 선언(1937. 7. 15) ⇨ 중일 전쟁 발발(1937. 7. 28) ⇨ 일치 <u>항일</u> 전선을 위한 국공 합작 결성
<u>중일 전쟁</u> 이후	<u>조선 의용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원봉 주도,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한커우, <u>1938</u>년) 세력 분화(1942) → <u>한국광복군</u> 합류 : <u>조선의용군</u>으로 편성
	<u>한국광복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 군대로 창설(충칭, <u>1940</u>년)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과 독일에 선전포고(추축국 선전, 1941)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 작전 수행(1943) 미군전략정보처(OSS)와 국내 진공 작전 준비(1945)

▣ **조선의용대의 창설과 분화**



▣ **한국광복군의 창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대한민국 원년(1919) 정부가 공포한 군사 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 원수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 내에 군대를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1940)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선언한다. 한국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 한국광복군 선언문(1940. 9. 15.)

58	반제·반전 연대	
<u>아주 화친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한 국제 조직 → 도쿄에서 결성(<u>1907</u>년) <u>판보이찌우</u>(베트남의 민족 운동가, 1867 ~ 1940), 고토쿠 슈스이(1871 ~ 1911) 등 참여
『동양평화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중근(1879 ~ 1910)의 집필(1910)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의 상호 협력 주장
불령사(不逞社)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박열, 가네코 후미코 등이 일본에서 조직(1923) 반전·반제국주의 운동 전개
동방무정부주의자 연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7개국 대표가 참여하여 제1차 창립(1927) 한국(신채호), 일본, 중국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조직 재정비(1928) 이상 사회 건설을 위한 연대 강조
<u>일본반제동맹</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에서 조직(1929)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한·일 공동 투쟁 강조 『반제신문 조선어판』 발간(1934 ~)
일본병사반전동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일 전쟁 이후 중국군의 포로가 된 일본군 중심으로 결성(1940) → 일본군에 투항과 탈영 호소

5단원. 오늘날의 동아시아

59	전후 처리	
국제 회담	<u>카이로</u> 회담 (1943.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영국, 중국 • 일본 점령지의 반환, 조선의 독립 최초 언급(적절한 시기에 ~)
	알타 회담 (1945.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영국, 소련 • 전후 독일의 처리 문제, <u>소련</u>의 대일전 참전 결정 • 러일 전쟁의 패배로 일본에 할양하였던 러시아의 권리 회복 승인 ✓ <u>사할린</u> 남부 및 이에 인접한 일체 도서 반환, <u>다렌</u>에 대한 이익 보장, 뤼순에 대한 조차권 회복, <u>쿠릴</u> 열도의 인도
	<u>포츠담</u> 선언 (1945.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영국, 중국 → 소련(8월에 동의)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요구, <u>카이로</u> 선언의 이행 재확인
일본의 항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원자 폭탄 투하, 소련군의 대일전 참전 → 무조건 항복(1945. 8. 15.) 	
<u>국제 연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 결성(1945. 10월) 	
일본의 전후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국 최고 사령부(SCAP / GHQ) 설치(1945. 10월 ~ 1952. 4월) ✓ <u>비군사화</u>, 민주화를 목표로 개혁 추진 ✓ 군국주의자 공직 추방, 군대 해체, 재벌 개혁, 농지 개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동 국제 군사 재판(= 도쿄 재판, 1946 ~ 1948) ✓ <u>포츠담</u> 선언에 따른 일본의 전쟁 지도부 처벌 ✓ 주요 피해국인 아시아 국가의 의사 미반영, <u>일왕</u> 및 전쟁에 협력한 관료와 재벌의 책임을 묻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신헌법</u>(= 평화 헌법) 공포(1946. 11월) ✓ <u>일왕</u>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 ✓ 일본의 <u>군사력</u> 보유 금지(제9조) ✓ 주권 재민의 원칙에 따른 인권 보호 조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대일본 정책 변화 → 일본의 <u>반공 기지화</u> ✓ 소련과의 대립(냉전), 중국과 북한의 공산화 ✓ 일본 경제의 재건 강조, 군국주의 세력의 복귀 허용, 경찰예비대 창설(<u>1950</u>.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샌프란시스코 강화</u> 조약 체결(1951. 9월) ✓ 총 52개국 참가, 중공 및 중화민국의 참가 배제, <u>대한민국</u>은 참가 자격 없음(특별 조항 명시) ✓ 일본의 주권 회복, 일본의 한국 독립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미일 안전 보장</u> 조약 체결(1951. 9월) ⇨ 개정(<u>1960</u>년) ✓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 체결 → 미군의 일본 주둔(<u>오키나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감시 아래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u>1948</u>. 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1948. 9. 9.) 	

- 전후 일본은 연합국 최고 사령부의 제안에 따라 주권재민, 평화주의, 인권 존중의 3개 원칙을 기반으로 한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헌법의 제9조에서 일본의 군사력 보유를 금지하여 ‘_____’ 이라고도 불렀다.
-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의 주도 아래 48개국과 일본이 체결한 강화 조약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_____ 국가로 복귀하였으나 강화 조약 체결 과정에 한국과 중국 등 피해국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미일 안보 조약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체결 직후 맺은 조약으로 일본의 안보를 위해 미군이 일본에 주둔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조약은 1960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다.

60	냉전과 전쟁(1)			
냉전 체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되어 체제와 이념을 둘러싸고 대립한 국제 질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소련이 동아시아에서 각기 자기 진영에 유리한 정부가 수립되도록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을 지원 		
중국의 국공 내전 (1946 ~ 1949)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의 패망 이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대립 미국의 중재로 충칭 회담 전개(1945. 8월 ~) → 쌍십 협정(1945. 10. 10.) 충칭 정치 협상 회의 개최(1946. 1월 ~) → 협상 실패 → 내전 본격화 		
	전개 과정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당 우세 →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옌안, 만주와 화베이이 주요 도시 대부분 점령 	
		경과	중국 공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 개혁 실시(1947) 농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획득
			중국 국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료들의 부패와 심각한 인플레이션 → 민심 이반
	결과	중국 공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토 장악 →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1949. 10월) 	
	중국 국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이완으로 이동 → 중화민국 정부 수립(1949. 12월) 		
미국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대륙에 대한 경제 봉쇄 정책 실시 일본의 방공 기지 역할 강화 			
전쟁	한국 전쟁 (6·25 전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치슨 라인 발표(1950. 1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동의를 받아 전쟁 준비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남침(1950. 6월) ⇨ 미군 중심의 유엔군 참전 ⇨ 인천 상륙 작전(1950. 9. 15.) ⇨ 중공군의 참전(1950. 10월) ⇨ 한국군과 유엔군 후퇴 ⇨ 38도선 부근 공방전 전개 ⇨ 정전 협정 체결(1953. 7. 27.) 	
	영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미일 안보 조약 체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1953. 10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권 회복, 한국 전쟁 특수로 경제 회복 	
		타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중국의 대립 → 미국의 전면적인 지지 획득 ✓ 중미 공동 방어 조약 체결(1954)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주의 진영에서 정치적 위상 상승 내부 정치 통합의 기반 마련 	

▣ 중국 공산당의 토지 개혁

제1조 봉건적 및 반(半)봉건적 착취의 토지 제도를 폐지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토지 제도를 시행한다.
 제2조 모든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폐지한다.
 제4조 토지 제도 개혁 이전에 발생한 향촌의 모든 채무를 폐기한다. …… - 중국 토지법 대강(1947)

▣ 한국 전쟁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평화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 당국에 전투를 즉각 중지하고, 그들의 군대를 즉시 북위 38도선까지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유엔 한국 위원단으로부터 북한 당국이 전투를 중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조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 대한민국이 무력 침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유엔 회원국에 권고하는 바이다.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1950. 6. 27.)

60	냉전과 전쟁(2)		
전쟁	베트남 독립 전쟁 (1946 ~ 1954)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찌민,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 선포(<u>1945</u>년) • 프랑스의 베트남 독립 불허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과 프랑스의 전쟁(디엔비엔푸 전투, 1954. 5월) • 베트남 민주 공화국 승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제네바 회담</u>(1954. 7월) ✓ 프랑스군의 철수 ✓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한 남북 분단 ✓ 통일을 위한 2년 내의 총선거 실시
	통일 정부 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공화국 수립(<u>1955</u>년) ✓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이 총선거 거부 → 남부의 단독 선거 실시 •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베트콩) 결성(<u>1960</u>년) ✓ 베트남 민주 공화국(북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남베트남 지역에서 활동 	
	베트남 전쟁 (1964 ~ 1975)	미국 참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통킹만</u> 사건을 빌미로 북베트남 폭격(<u>1964</u>년), 전투 부대 파병
		전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u>한국군</u> 참전(1964 → 1965) • 북한, 중공, 소련은 북베트남 지원
		미국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공과의 관계 개선 시도 → 닉슨의 방문(<u>1972</u>년)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전 운동 확산, 막대한 재정 부담, 인명 피해 등 미국의 어려움 가중 ✓ 닉슨 독트린 발표(<u>1969</u>년) ✓ 미군의 단계적 철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평화 협정 체결(<u>1973</u>년 1월) ✓ 미국 ~ 북베트남, 미군이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할 것을 합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베트남의 <u>사이공</u> 점령(1975)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u>1976</u>년)
중월 전쟁 (1979 ~ 1988)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 중공의 베트남 침공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공 ~ 베트남의 평화 협정 체결 →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 		

▣ 베트남 민주 공화국 독립 선언문(1945년)

프랑스는 도망쳤고,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바오다이 황제는 퇴위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거의 한 세기 동안이나 옥죄었던 쇠사슬을 끊고, 조국의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수십 세기 동안의 군주제를 전복시키고 민주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베트남 전 인민을 대표하는 우리 새로운 베트남 임시 정부는 이후 프랑스와의 모든 식민지적 관계들을 타파함을 선언합니다.

61	국교 회복(1)	
<u>1952</u>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화 평화 조약(4월) ✓ 동아시아 최초의 국교 회복 ✓ 중화민국(타이완)의 대일 전쟁 배상 청구권 포기 	
<u>1956</u> 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소 공동 선언(10월) ✓ 전쟁 상태 종결, 전시 청구권과 배상의 상호 포기 • 일본, 국제 연합 가입(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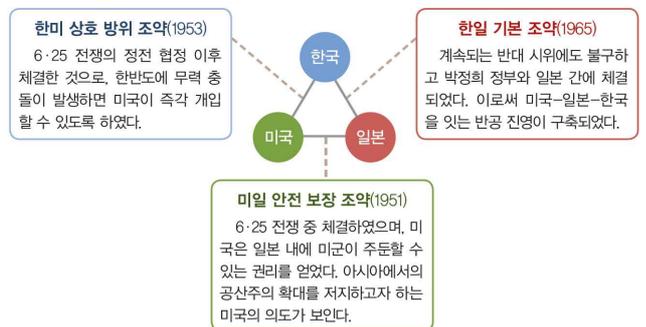
61 국교 회복(2)	
<u>1965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기본 조약(6月) ✓ <u>미국</u>(동아시아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한·일 협력 요구), 한국(경제 건설을 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 필요), 일본(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한국과의 교역 필요) ✓ 한국과 일본 내에서 국민들의 반대 → 6·3 시위(한국, 1964)
197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공, 국제 연합 가입(10月) ✓ 상임이사국의 지위 승인 → 중화민국의 회원국 지위 상실
<u>1972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닉슨의 중공 방문 ⇨ 미중 정상 회담 ⇨ <u>미중 공동 성명</u>(= 상하이 코뮌iqué, 2月) ✓ 중공이 유일한 국가 → 타이완은 중공의 일부 • 중일 공동 성명(9月) ✓ 중공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일본), <u>타이완</u>과 국교 단절(일본),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 포기(중공)
<u>1978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일 평화 우호 조약(10月) ✓ 양국 사이의 전쟁 상태 종결 선언
<u>1979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수교(1月) ✓ 미국과 타이완의 국교 단절
<u>1992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수교(8月) ✓ 냉전 붕괴의 영향, 한국 → 타이완과 국교 단절 • 한·베트남 수교(12月) ✓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 → 경제·기술 협력 협정, 무역 협정, 항공 협정 등 체결(1993)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과 관계가 멀어지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 핵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로 일본과 국교 관계 수립 실패

▣ **한일 기본 조약**

제1조 양 체약 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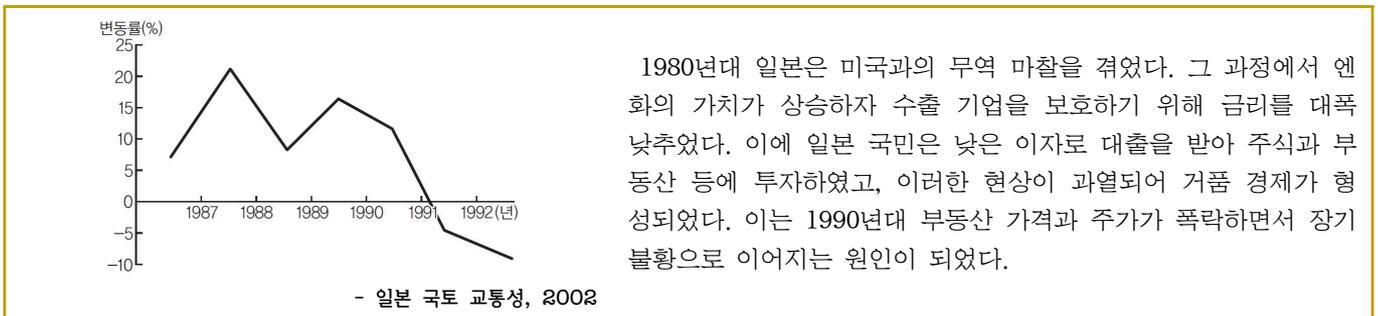


▣ **미중 공동 성명**

중화 인민 공화국과 미국 사이에는 사회 체제와 대외 정책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쌍방은 각국이 사회 체제가 어떻든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의 존중, 타국에 대한 불침략, 타국 내정에 대한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 공존의 원칙에 따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국제 분쟁은 이 바탕 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며, 무력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중화 인민 공화국은 양국 관계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용의가 있다.

62	경제 성장(1)	
일본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 전쟁 패배로 극심한 경제 혼란
	1950 ~ 1970년대 초	• 미국의 지원과 한국 전쟁 시기 군수품 생산으로 경제 회복
		• 연 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1955 ~ 1973)
	1970년대	• 자본주의 국가 중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
	1980년대	• <u>석유</u> 파동(1973·1978) → 기술 개발, 경영 합리화로 경제 위기 극복
		• 첨단 제품의 생산 확대, 수출 증가로 최대의 경제 호황
1990년대	• 미국과 무역 마찰 ⇨ <u>플라자 합의</u> (엔화 평가 절상, 국내 시장 개방, 1985) ⇨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과열로 주가와 부동산 가격 폭등 ⇨ 거품 경제 형성	
한국	1950년대	• 미국의 원조에 기반을 둔 소비재 공업(제분·제당·섬유 등 삼백 산업) 발달
	1960년대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u>1962</u> ~ <u>1966</u> 년)
		✓ 외국의 자본과 기술,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u>수출</u> 주도형 경공업 육성 정책 추진
	1970년대	• 1960년대 말 연 10% 이상의 경제 성장
	1980년대	• 철강, 조선, 기계 등 중화학 공업 발전 → 수출 100억 달러 돌파(1977)
		• 제2차 석유 파동,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 → 경기 침체(1978 ~)
1990년대	• 3저 호황(저유가·저달러·저금리, <u>1985</u> 년)으로 경제 성장	
타이완	• 아시아의 4대 신흥 공업국으로 발전	
	• IMF 외환위기 발생(<u>1997</u> 년) → 외자 유치와 구조 조정으로 극복(2001)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무역, 서비스업에 기초한 시장 발달	
	• 200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안정적 성장	

▣ 거품 경제 전후 일본의 지가 변동률 추이



▣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평가 보고서(1967)

가. 계획 기간 중 경제의 체제는 되도록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 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 부문과 그 밖의 중요 부문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 정책을 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 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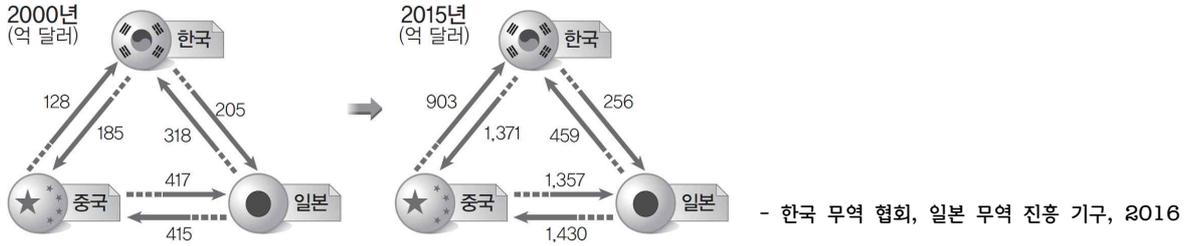
나. 계획에 있어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정책 수단을 보유하는 공적 부문에 그 중심을 두고, 이것이 민간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활동을 자극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유도 정책을 감안하기도 한다.

62	경제 성장(2)		
중국	1949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경제 정책 추진 ✓ 토지 개혁(무상몰수·무상분배), 주요 기업의 국영화 	
	1950년대	1952	• 농업 생산 합작사 (협동조합) 조직 → 농업의 집단화 진행
		1953	• 제1차 5개년 계획(~ 1957)
			✓ 소련을 모델로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 추진
		1958	• 대약진 운동(~ 1961)
	✓ 농업과 공업의 대규모 증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공사 조직 → 농업 집단화, 철강 증산 위해 노동력 동원 ✓ 집단화에 따른 농민의 불만, 근로 의욕 감소, 기술력의 부족, 자연재해 등으로 실패 ✓ 류사오치(1898 ~ 1969) 등이 사회주의 경제의 수정 요구 		
	1970년대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덩샤오핑, 흑묘백묘의 실용주의 정책 추진 ✓ 농업·공업·국방·과학 기술의 4개 부문 현대화 ✓ 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 도입과 대외 개방 정책 진행 ✓ 인민공사의 사실상 해체 → 법적 폐지(1982)
		1979	• 경제 특구 설치(선전, 주하이, 산토우 등)
	1990년대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순 강화(南巡 講話) ✓ 제2의 개혁·개방 정책 ✓ 매년 10% 가까운 경제 성장
2000년대	2001	• 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 → ‘세계의 공장’	
북한	1950년대	• 사유 재산 부정, 협동농장과 국영 기업 중심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	
		• 천리마 운동 추진(1958)	
	1970년대	• 경제 체제 모순, 소련의 원조 중단,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으로 경제 침체	
	1980년대	• 합작회사경영법 제정(1984 년) → 외국 자본 유치 노력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너스 성장과 극심한 식량난 ✓ 무리한 중공업 우선 정책, 동유럽 사회주의권 몰락, 자연재해 등 	
2000년대	• 남한과의 경제 교류 → 금강산 관광(1998 ~ 2008), 개성 공단 조성(2004)		
베트남	통일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개혁과 농업 집단화 등의 사회주의 정책 시행 • 캄보디아 내전에 개입, 중공과의 국경 분쟁 등으로 재정 악화,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 → 경제 악화, 식량난 가중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이머이 정책 추진(1986 ~) ✓ 시장 경제 체제 일부 도입(국유제 ⇨ 국유와 협동조합, 사유 등으로 전환) ✓ 세계 3대 쌀 수출국으로 성장(개인 농가에 농지 대여, 농업세 경감, 농업에 투자 집중) ✓ 자본주의 국가와 교역 확대,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 	

▣ **남순 강화(1992)**

사회주의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인민 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막다른 외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당의 이러한) 기본 노선은 1백 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도록 꼭 잡아 주어야 합니다. 오로지 이 노선을 견지해야만 인민이 믿고 옹호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 아래의 노선·방침·정책을 바꾸고자 한다면 인민이 응낙하지 않을 것이며, 타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동아시아 역내 교역량의 변화(∵ 중국의 세계 무역 기구 가입, 2001년)



63	정치 발전(📍)		
일본	1950년대	<u>55년 체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 안보 조약 체결(1951) 이후 보수와 진보의 대립 심화 • 보수 정당들이 신헌법(평화 헌법) 개정 시도 • 일본 사회당의 좌·우파가 통합 ⇔ <u>자유민주당</u>(= 자민당, 보수 정당인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의 통합) • 1955년 자민당의 집권 이후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 체제 지속
	1960년대	도쿄 올림픽	• 아시아 지역 최초로 하계 올림픽 개최(<u>1964년</u>)
	1970년대	록히드 사건	• 정부 관리가 미국의 록히드사로부터 뇌물 수수(<u>1976년</u>)
	1990년대	55년 체제 붕괴	• 경제 침체와 정치 부패로 자민당의 과반 의석 획득 실패 ↳ 비(非)자민당 연립 정권 수립(<u>1993년</u>)
	2000년대	민주당 집권 자민당 재집권	• 정권 교체(하토야마 내각, <u>2009년</u>) •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2012 ~)
한국	1960년대	<u>4·19 혁명</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추구 • 3·15 부정 선거에 저항 • 장면 내각 수립(<u>1960년</u>)
		박정희 군정	• 5·16 군사 정변 이후 권력 장악(1961)
		박정희 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대 대통령 당선(1963) • 3선 개헌(1969) → 장기 집권 모색
	1970년대	박정희 유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유신 선포(1972) • 대통령 피살로 유신 체제 붕괴(10·26 사건, <u>1979년</u>)
	1980년대	전두환 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군부 세력의 정권 장악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u>1980년</u>) • 제11대 대통령 선출(1980) → 제12대 대통령 선출(1981) • 6월 민주 항쟁(<u>1987년</u>) →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90년대	김대중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대 대통령 당선(1997) •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u>1998년</u>)
		1949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계엄령</u> 선포, 헌법의 민주적 절차 정지 • 국민당 일당 체제 실시
타이완	1970년대	• 가오슝 사건(진보 잡지 『메이리다오』의 창간 기념집회를 강력 진압, <u>1979년</u>)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진보당 창당(1986) → 장징궈, 복수 정당제 사실상 허용 • 계엄령 해제(<u>1987년</u>) 	
	1990년대	• 총통 직선제 개헌(<u>1994년</u>)	
	2000년대	•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천수이볜 총통 당선 →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u>2000년</u>)	

63	정치 발전(2)	
중국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이념 분쟁(1956) • 마오쩌둥의 실각 → 류사오치의 국가 주석 취임(1959)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류사오치와 마오쩌둥의 권력 투쟁 심화(1964)
	1960 ~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대혁명(1966 ~ 1976년) ✓ 대약진 운동 실패로 마오쩌둥의 정치적 입지 축소 ✓ 역사극 해서과관(海瑞罷官)에 대한 장칭의 평론이 도화선이 되어 시작 ✓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투쟁 주장 → 홍위병을 조직하여 반대파 제거 ✓ 류사오치 등 실용주의자의 실각 → 마오쩌둥의 권력 장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우언라이 사망(1976. 1월) ⇨ 텐안먼 사건(4월) ⇨ 마오쩌둥 사망(9월) ⇨ 화궈핑이 장칭 등 4인방 숙청 ⇨ 덩샤오핑의 복권(1977) ⇨ 덩샤오핑의 권력 장악(1978)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야오방 사망(1989. 4월) ⇨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텐안먼 사건, 5월) ⇨ 정부의 무력 진압
북한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전쟁 이후 김일성 1인 지배 체제 강화 • 중소 이념 분쟁 가운데 자주 노선을 내세우며 주체사상 표방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헌법 제정(1972년)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의 권력 승계 및 유훈 통치(1994 ~ 1997)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의 권력 세습(2011)

64	갈등과 화해(1)	
영토 문제	쿠릴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방 도서 4개 섬 → 일본, 러시아가 영유권 주장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이 점령 → 현재 러시아가 영유
	센카쿠 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타이완, 일본이 영유권 주장 → 일본이 실효 지배
	시사 군도 (파라셀 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령 인도차이나(1887 ~)에 예속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트남이 관리 • 1974년 중공이 무력으로 점령 후 실효 지배 → 베트남과 분쟁 중
	난사 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점령(1945) → 국공 내전으로 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 주장 		
독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국제법상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 제국 칙령 제40호(1900),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1946) 	

▣ 동아시아의 영토 갈등 : (가) **센카쿠** 열도, (나) **쿠릴** 열도



64	갈등과 화해(2)
역사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교과서 왜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이후 보수 성향 강화 ✓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역사관을 담은 교과서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소샤 교과서(2001) • 일본군 <u>위안부</u>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베 정부 → 정부의 강제 동원 부인, 직접 배상 등의 조치 회피 ✓ 국제 사회의 노력 → 유엔 인권 위원회, 미국·캐나다 의회에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 • <u>야스쿠니</u> 신사 참배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세계 대전의 A급 전범 14명을 합사(1978년) ✓ 보수 정치인들의 참배로 주변국과 갈등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동북공정</u>(東北工程) 문제(2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 의 약자 ✓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지역을 개발하고 그 지역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귀속시키고자 추진 ✓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지방사로 인식
화해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노 담화(1993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소 운영에 대한 일본군과 정부의 관여 인정 ✓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표한 일본 정부의 공식 성명 ✓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무라야마</u> 담화(1995.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 ✓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군 위안부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음 • 공동 역사 교재 개발, 공동 역사 연구, 민간 차원의 국제 연대 활동 등

▣ 무라야마 담화

우리 일본은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에 국가 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 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